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루」大統領再選되면 世界平和會議開催
各國의最高代表者를網羅코 戰爭防止對策協議

【紐育廿六日發同盟】뉴욕타임스紙는 二十六日附紙上에 루즈벨트大統領이 萬若再選되는境遇에는 一九三七年日、英、米、佛、伊、獨、中、蘇各國最高代表者를 網羅한世界平和會議의 提唱을 考慮中이라고 傳하야 各方面에 多大한 衝動을 與하고잇다 右는 뉴욕타임스紙華盛頓支局로크氏의 報道에依한것으로 루즈벨트大統領은 마친내 右世界平和會議의 提唱이 決定되는대로 即時英國皇帝 에드와드八世陛下 루브랑佛大統領 뭇소리니伊太利首相 스탈린蘇聯共產黨書記長 日本 中國其他 各國의最高代表者에對하야 招請狀을 發할意向을 가지고잇다 그리고 會議에對하여는 左와如한希望을 갓고잇다한다

一、平和會議는 軍縮問題를 비롯하야 戰爭防止에關한 各國의 協力策을 檢討할것 이미 西半球에잇서 米洲의平和確立에 關하여는 近近汎米平和會議를 開催하고 東半球에잇서 平和確立에對하여도 右汎米平和協定을 모델로勸奬할

一、經濟問題는 往往戰爭의 原因이되는데 鑑하야 各國에 對하야 米國의 互惠通商協定關稅障壁低下 政策의範을 模倣하기를 勸奬할

一、假令會議가 單純한 제스추어로 終了된다고해도 各國代表의 意見交換만이라도 戰爭防止에 얼마큼이라도 効果가잇슬것이 明白하다

그리고 루즈벨트大統領은 윌손大統領이 베르사이유會議提唱當時와달라 現在는 平和時인만큼 戰捷國도 戰敗國도업다 따라 世界平和會議의 開催에는 가장 適當한時機라고 思惟하고 萬若來年大統領에 就任할境遇에는 好機를 逸치안코 會議開催에 努力할 意向이라고 報道하다 (寫眞은 루즈벨트氏)

平和會議提議說 聯盟側에선確信

【쥬네브二十七日發同盟】루즈벨트米大統領이 世界平和會議提唱을 考慮中이라는報道에 對하야 國際聯盟은 左의 觀測을나리고잇다

루즈벨트大統領이 世界平和會議提唱을決意하게된 理由는米國이世界的危機救濟가 가장必要한時機에到達하엿다고確信하게된 證左이다

루大統領은言明廻避

【비스말行列車에서=아이다호二十六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 九月一日 오하이오州데모인市에서 열릴 旱害地方知事會議에 出席하기爲하야 二十六日 비스말으로 赴하는 列車에서 뉴욕타임스紙上에 報道된 世界平和會議提唱說에關하야 眞否를 質問한바 側近者를通하야 右에關한 一切의言明을 拒絶하엿다

西國首都의實權은 共產黨完全掌握
秘密警察隊組織、赤色恐怖實行

【앙데二十六日發同盟】마드리드를 脫出하여온 反政府側의 말에依하면 內亂의 中心地 마드리드에잇서 共產主義者의 活動은 甚하야 首都는 事實上사비에트化하야 其他革命共產主義者의 掌中에歸하야 바야흐로 赤色테로의 渦中에陷하게되엿다고 傳한다 共產主義者는 有名한 蘇聯의체카를 模倣한 秘密警察隊를 組織하야 三隊로 나누어 市中을 巡巡하면서 反對派를 射殺한다고하며 一方 아자니아大統領以下 穩健派의閣僚는 嚴重監視되엿고 他의 閣僚는 共產主義者의 傀儡로 化하엿다고 傳한다 그리고 有名한 猶太人系 共產主義者 노이만도 이에加擔하야 活躍하고잇다한다 (寫眞은 마드리드市의中心街)

叛軍이룬市猛擊
政府軍善戰하야反擊

【앙데=西佛=廿六日發同盟】北部叛亂軍은 二十六日早朝부터 이룬市에向하야 一齊攻擊을開始하야 政府軍과의間에 猛烈한激戰을展開하야 殷殷한砲聲은 當地에도똑똑이들니고 佛國國境부리아우르村附近에는 數個의流彈이 落下되엿다한다 叛軍의이룬總攻擊은 海陸兩方面에서 行한바 市의郊外丘陵地帶의 堡壘에占據한政府軍에對하야 間斷업는 攻擊을加하고잇다 또增援部隊로到着한 모록코土民軍은 直時 戰鬪에 參加하야 約五十名의 小部隊에 分하야 前進決死의 突擊을하는中이다 政府軍側도民團及 義勇軍增援下에 決死의防戰에努力하야 二十六日 午前十時까지에는 能히 叛軍의總攻擊을 阻止하고잇다고한다

叛軍支持聲明한 西公使地位問題
堀內外務次官에게會見要望

【東京電話同盟】駐日西班牙公使가 叛軍支持聲明을 發表한데關하야는 아직外務省에 通告가업스나 여러가지情報를 綜合하면 西班牙在外大公使及 外務省의大官들은 겨우四名에 끄치고 他는 全部秘密裡에 現政府로부터 罷免되엿다 하는바 日本側도駐日公使가 如何한 立場에잇는지 判明되지안흐나 데비고우公使가 午後三時 堀內次官에게 會見을 申請하엿슴으로 그때에는 判明될것이다 日本駐箚公使가 本國現政府의 代表者가아니라는 旨를表明하면 日本政府로서는 現政府의 代表者로 承認하엿슴으로 事實上 外交官으로서의 資格을 喪失할터이나 法律的으로보면 解任手續을 完了하기까지는 公使의 資格이 잇다함으로 公使의地位는 자못困難한 問題이며 아직前例도 업슴으로 外務當局은 蘇聯革命當時 其他의前例를 硏究하야 對策을 樹立

八面鋒

◇赤色 西班牙에서는 反幹部派라 指目된 지노비에프等 十六名에게 死刑을 執行。

◇레닌과 나란히하야 革命의殊動者인 巨頭들을 刑一等의減下도 업시 嚴刑함을 同志트로츠키가 憤慨함도 當然。

◇못견대 부하린、카메네프의諸巨星도 反幹部運動에 關聯이잇다니 스탈린政權도 多事多端한 모양。

◇누구의 말가티 政權이란 保守的 물건 한번 잡으면 固執하라는것이 通弊니、이곳에 友誼、人情、正義도 沒却되는法。

◇支離한 장마비 또다시 中部朝鮮一帶를 掩襲、京江一帶가 또 危險。

◇大自然의 하는 일이라 막을 道理는 업지만, 실줄 구츤 장마비 何必日 가난한 朝鮮만 못살게 구는가。

◇明日、再明日은 水災救濟音樂會、今日、三十日以後 四日은 白頭山探險 映寫會。만히와 災民도 救濟하고 探險心도 길르시오。

平和會議提唱에 伊太利側은反對

【羅馬二十六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의 世界平和會議提唱說에對하야 伊太利政府及 따시스트方面에서는 反對意見을 表明하야 左와如한 見解를 가지고잇다

루즈벨트大統領이 世界平和會議의 開催를 提唱한다고하나 此種會議가 果然 成果를 收得할는지 其與否는 疑問이다 伊太利政府는 過去의 經驗에 비추어 國際會議는 成案을事前에 準備치못하엿다 도리혀 伊埃紛爭 協約과如히 個個의 問題에關하야 利害關係國이 直接折衝을 하는 便이 可하다고하다 伊太利政府는 關係國參加下에 具體的問題를 討議할會議만이 實際的効果를 齎來하리라고 思惟한다 뭇솔리니首相은 假令루즈벨트大統領의 提唱下에 世界平和會議가 開催된다고해도 出席치안흘것이다

西大統領首都退出說

【리스본二十六日發同盟】叛軍手中에잇는 세비리야放送局의 發表에依하면 西班牙大統領아자니아氏는 二十六日、마침내 마드리드를退出하야 발렌시아로 向하엿다한다

西前皇帝叛軍援助

【마드리드二十六日發同盟】西班牙政府發表에 依하면 今回內亂의裏面에 前皇帝알폰소十三世의 叛亂關係를 證明할重大한 書翰이發見되엿다 右는叛亂軍 一將校에게 한것으로同書翰中 알폰소十三世는 今回의 義擧의 目的達成을爲하야 모든努力을不惜한다고적혀잇섯다

須磨總領事來滬協議

【上海廿七日發同盟】成都事件에 關하야 二十六日 張群外交部長과 會見하고 嚴重抗議를 行한 須磨南京總領事는 廿七日 午前七時 上海에 來着하야 同十時 大使館事務室에서 若杉參事官 總領事會議에 出席키 爲하야 來滬中인 三浦漢口總領事 中村廣東總領事及 外務省에서 派遣한 太田事務官과 會合하야 成都事件에 關한 中國側과의 交涉顚末을 報告하고 諸般情報를 交換한後 今後 對策에 關하야 重要妥協을 遂하엿다 그리고 右席上 太田事務官은 外務省의 對中方針을 傳達하는 同時에 北中會議에 對하여도 說明하엿다

人事·集會

▲李載崑氏夫人大邱徐氏 今月二十六日午後五時半 高陽郡纛島面廣壯里自宅에서別世

▲小城京城遞信分掌局長 八月廿七日事務視察코저開城 淸州 裡里 鳥致院 全州 儒城 大田 群山 各地에出張

欣然參加!
日本側의見解

【東京電話同盟】루즈벨트大統領이 次期大統領選擧結果 再就任하게되면 世界平和會議를 華盛頓에 招集하려는 意向을가지고잇다고 뉴욕타임스에報道하엿는데 右에 關한情報는 아직日本外務省에到達치안헛슴으로 當局은이에 對한批評을 保留하고잇스나 그러나 問題의 世界平和會議는 루즈벨트大統領의 留任을條件으로하는것인만큼 目下具體的內容을 捕捉할수업스나 世界平和會議의 招集趣旨의 精神其他가 多分으로 大統領選擧에 關한 民主黨의 宣傳工作을 加味한것이라는 것은 事實로 아마 루즈벨트大統領의 腹案의 一面을 表現한데 過하는것이라고 보는것이至當하다 聯盟脫退以來 日本政府는 原則的으로 國際聯盟과같은 現狀維持主義의 國際會議에 對하야는 非協力方針을 堅持하여왓스나 全世界의 平和確立을 推進하야 眞正으로 世界平和를 威脅하는 原因의 除去에 對하야 世界各國이 積極的으로 協力을 不惜하는 會議에는 欣然率先參加할 用意와 熱意가잇는바 日本의 東亞政策의 世界的認識과 世界領土資源市場의 自由開放을 闡明하야 堂堂히 이에 卽應하야 各國代表와의 間에 自由率直히 意見交換을 遂하기를 不吝하는바이라한다

南新總督初登廳
新聞記者團에諭告發表

着任第一夜를 [illegible]官邸에서보낸 南新總督은 二十七日午前五時에起床하야 冷水摩擦을行하고 朝餐을 [illegible]한後 同八時半陸軍大將의 正服으로 [illegible]秘書官、[illegible]을 出發하야 [illegible] 同九時總督府에 初登廳하야 [illegible] 同九時半부터 第一會議室에서 [illegible] 新聞記者團과 會見하고 [illegible] 大方針을闡明하는 [illegible] 中外에 發表하고同十時十分 小磯軍司令官 [illegible] 來訪을 밧어 [illegible] 後十時三十分부터 第三會議室에서 [illegible] 臨時局長會議에 [illegible] 一旦官邸로 도라가 [illegible] 午後二時軍司令官 [illegible] 着任第二日의 日程을終了할터이다

諭告

[illegible]

昭和十一年八月二十七日

朝鮮總督 南 次郞

明示된施政大綱

[illegible]

在京外交團代表祝辭

在京外交團代表英國總領事 필포드氏는 二十六日午前十一時十分總督府에 南新總督을 訪問하고着任에對하야 祝辭를 述하엿다

白頭山探險記

入山肉食嚴禁은 虎豹豺狼謀避策

⑥ 徐 椿

時間順으로 보면 順序가 若干 바꾸이는 말이나 八日 茂山서의 點心時間의 일로 한가지 이저버리지 못할 일이 잇다. 말하면 狗肉事件이라고 할 것이다.

點心을 시켜만 노코 아직 먹지 못하고 잇는 조음이다. 茂山에 先行하야 三四日을 留한 方在胤君은 나한테 對하야 일즉 狗肉을 먹어 본 經驗의 有無를 무르면서 그 治療에 効果잇슴을 말한다.

이 말을 듯은 나도 또한 好奇心에 끌니어 同人은 개고기 집에 차저 갓다. 아모 생각 업시 먹고 잇는 中途에 문득 생각하니 「古來로 深山 더구나 靈山을 차저 가는 사람은 肉食을 끈코 소를 하는 法이며, 더구나 개고기는 禁物中에 禁物이다」라는 傳해 오는 말이 생각 난다. 이 瞬間에 傳統的迷信에 몰드른 나는 그것이 一種迷信에 不過하거니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모소름이 치는것을 禁치 못햇다. 이와 同時에 먹든 物件은 맛을 모르게되엇다. 마음이 꺼림칙 하다. 入山辨節에 잇서서 一種 방정 마즌 짓을 하지 안헛나하야 後悔가 되나, 이야말로 이미 저즈려 노흔 일이라, 噬臍莫及이다. 對坐한 方君한데 이말을하고 십지 마는 그가 마저 나와가티 騷亂한 마음을가질까 두려워하야 말을 一切 안키로햇다.

그러나 旣往 먹기를 始作한 바에는 半을먹고 마르나, 먹을수잇는 分量까지 다 먹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繼續해 먹기로햇다.

먹기는 먹으면서도 從是, 마음의 散亂을 免치 못햇다. 수까락질을하면서 狗肉과 入山과의 關係를 이리저리 생각하든 끄테 문득 한理致를 깨다르니 그것은 다음과갓다.

動物進化學上으로 보면 空中에 나는 새는 視覺이 發達되고 山에 닷는 獸類는 嗅覺이 發達되여 잇다. 一行千里의 大速力을 가지고 空中數百米突을 놉피 나는 鳥類에게는 食物探査上으로 보나 侵敵防備上으로 보나 視覺의 明은 絕對生命이기 때문으로 餘他 모든 動物에 比하야 視覺이 越等히 發達되것이다. 叢叢密林에 樹葉이 茂盛하야 咫尺의 아플 내다볼수업는 深山幽谷에 닷는 獸類에게는 視覺의 明은 第二次的 意義밧게 업고 密林叢藪의 드마리드마리를 뚤코 숨겨 나오는 냄새를 맛는것이 絕對必要事에 屬한다. 그럼으로 獸類는 嗅覺이 發達되엿다. 범이 노루 잇는 方向을 알고 달려가는것도 嗅覺을 用하야 探查한 結果요, 노루가 이리가 잇는 方向을 알고 事前逃避를 하는것도 嗅覺의 結果다.

이 一事에 入山齋戒의 科學的根據를 찻을수가 잇다.

入山에 際하야 事前多日을 두고 소를 하며 沐浴을 하며 剪爪를 하는것은 虎豹豺狼의 嗅覺을 剌戟시길만한 牛羊雞豚狗彘의類의 비린 냄새를 一身의 內外는 勿論 손톱에 부튼 냄새까지라도 떠러버리자는데로부터 나온것이다. 이러케 생각해보면 옛날 사람들이 入山에 際하야 一切로 肉食을 안코 沐浴齋戒를 行한것은 山 諸獸를 두려워한 그런것이 아니라, 虎豹豺狼의 來侵을 避하기爲해 그런것이다. 더구나 개는 虎豹豺狼의 가장 질겨하는 食餌라. 그냄새를 自己의몸에 부치고 가는것은 即, 虎豹豺狼을 對하야 개대신 나를 잡아 먹어 달라는것이다.

萬若 그러타고하면 科學이 進步되고 武器가 發達한 今日에 잇서서는 銃砲彈丸을 携帶할수만 잇다면 入山에 肉食嚴禁制는 조곰도 必要업는 일이다. 다만 必要업슬뿐만아니라, 有時乎 도리어 必要잇다고 할것이다. 꿩(雉)잡으러 단니는 砲手가 꿩을 誘引하기 爲하야 誘引用呼角을 불드시 肉類, 特히 虎豹豺狼이 第一로 질겨하는 개비린내를 몸에 무처 가지고 山으로 드러가면 그 냄새로써 虎豹豺狼을 誘引할수가 잇슬것이오, 誘引하야 銃砲로 잡을수가 잇슬것이다.

何如間, 白頭靈山을 向하야서의 入山直前에 비린내 나는 개고기를 입에 대인것은 暫時의 不注意로 因한 過失이다. 勿論, 只今 모양으로 생각하면 肉食嚴禁制는 古代에 잇서서는 不可避의 制度이엇스나 그必要가 발서 업서 진 今日에 잇서서는 그 此制는 一種迷信化한것이다. 그러라고 할지라도 先祖代代로 傳해 나려온 禁制를 犯한 나의 마음은 終是 便安할수가 업섯다. 科學的分析에 依하야 理由를 부흠은 털어버리는 저이 마음이 노히는 듯하나 다른 한 便으로는 終是 꺼림칙하다는 생각을 禁할수가 업는채로 六七日을 白頭山頂으로 도라단니다가 八月十五日 山의出口 胞胎里에 나와 가지고야 비로소 꺼림칙한 不安의 마음을 아조 떠러 버릴수가 잇는것이다.

(寫眞은 범과 개=續)

蘇聯騎兵二十騎 滿洲國內에越境
監視隊와交戰한後領外退去

【新京二十六日發同盟】二十六日午前十一時 滿洲國東部國境東寧蘇東北 滿蘇國境蘇聯邦계페우屯所로부터 蘇聯騎兵二十騎가 國境河川을 渡涉越境하여오는것을 日本監視隊가 發見한바 蘇聯騎兵은 日本軍이잇는것을알고 即時發砲射擊을 開始하엿슴으로 日本側에서도 이에應戰하야 滿洲國領外로 此를 擊退하엿다 蘇聯側은 死傷者를 滿載하고逃走하엿다 其後蘇聯兵은 다시蘇領警官河로부터 重機關銃二基를 據한 約七十의騎馬兵을 增加하야 再次 越境襲來하려는 姿勢를 示함으로 日本軍은 嚴重警戒에 當하여잇다 日本側에損害는업다

【新京二十六日發同盟】東寧 [illegible]

滿洲國에서嚴重抗議

北方에서 發生한 蘇聯騎兵의不法越境事件에關하야 滿洲國外交部는 二十六日午後六時 北滿外交特派員施履本氏를通하야 蘇聯邦哈爾賓總領事 스라우스크氏에對하야 嚴重抗議를 提出하는 一方 포크라니치나야外交辨事處代表로하야금 在포크라니치나야蘇聯領事에 對하여도 同樣의 抗議를 提出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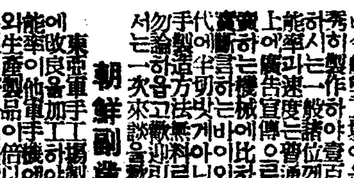
蘇聯大使館參事官 蘇商船釋放을要請

【東京電話同盟】駐日蘇聯大使館參事官 리이비츠氏는 廿六日 午後三時半 外務省에 東亞局長을 訪問하고 過日 馬公要塞附近에잇서 不法測量犯으로 拿捕된 蘇聯商船의 釋放을 要請하엿다

日滿軍用機越境 타스通信社의報道

【莫斯科廿六日發同盟】타스通信社發表에 依하면 去八月十四日 二十一日間에 滿洲國軍用機 日本軍用機五機가 蘇滿國境을 飛翔 其中二機는 [illegible]

東亞軍手製造家募集



朝鮮副業協會 [illegible]

東亞手袋工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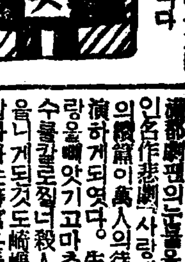
新民謠 빅타ー레코ー드
성화타령 金福姬
梧桐秋夜 李圭南(合唱附)
레코ー드番號 四九四二五

東洋劇場 西大門
八月二十六日부터特別大公開!
코롬비아社特作全發聲西部劇
草原의快男兒
朝鮮映畵 春風
原作脚色……安夕影 朴基采第一回監督作品!
文藝峰 大共演 李慶善 朴孤城 金寅圭 卜惠淑

國際오림픽 第四報
貫鐵町 優美館 電光三九五

靑春座公演第九週 八月二十七日(木)부터晝夜
一、悲劇 사랑에속고돈에울고 三幕
二、新撰舞踊劇
三、喜劇 以熱治熱 一幕五場
午前二時부터 九時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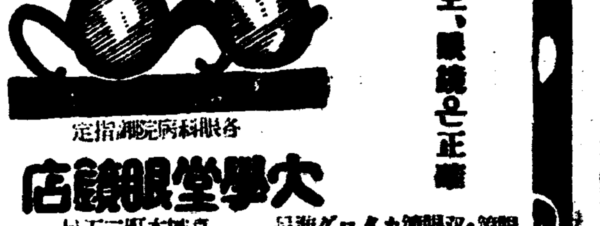
雨衣都散賣



朝鮮防水布製造所

여러분의사랑하는子女들의우장옷은다ー준비되엿습니까雨季는일로부터옵니다

生徒募集 (晝夜) 京城實踐簿記學院



大學堂眼鏡店

水魔再襲·到處에山崩慘變

山崩으로一洞全滅
村民二百餘名이生埋
屍體續續發掘中、詳細不明
迎日立岩洞의慘事

【大邱支局電話】 이십륙일밤부터 이십칠일 아침까지사이에 경북영일군동해면립암동(迎日郡東海面立岩洞)에잇는 뒷산이 련일퍼부어 나린폭우때문에 허무러저나려서 그산미테 잇든 팔십여호는 원통속에 뒤덥피고 말엇다。 이와동시 거기에 살고잇든 이백여명의 주민도 모다 그속에 파무친채 생사를 아조모르고 잇는데 지금까지 끄집어내인 시체만 여덜명으로 아프로도 작구 시체들을 파내이고 잇는중이다。 그리고 자세한것은 전신전화가 모조리 불통되엿기때문에 전혀진상을 알어낼길이 업다。

三浪津、咸安에山崩
八名壓死의慘事
三浪津은벌서危險水位突破
慶南一帶에再次水亂

【釜山支局電話】 이십륙일오후열시부터 경남(慶南)지방에는 또다시 폭우가 쏘다지기 시작하야 이십칠일오전열시까지의 우량은 일백이십미리 내지 이백미리나되엿다。 이번 호우로 삼랑진면송지리(三浪津面松旨里)뒷산이 문허지며 그아래잇든 가옥이 붕괴되야 박수복(朴守福)(三)외 네사람이 참사를 당하엿스며 함안군칠서면대치리(咸安郡漆西面大峙里)에서도 산이 문허저서 가옥이 도괴되며 진창갑(陳昌甲)이라는 사람의처 오금선(吳今先)(三)과 그의딸 진순애(陳淳愛)(三)와 리옥증리에서 놀러온 열일곱먹은 소녀가참사하고 말엇다 이가티 여덜명이나 희생자를내인 경남일대의 교통이 불통된곳은 다음과갓다 경전남부선(慶全南部線)유림정(楡林亭)진영(進永)간의 철도가 수중에 이십센치가량이나 파뭇치여긔차가 불통이되엿스며 마산(馬山)삼랑진(三浪津)간도불통이되엿다 자동차선로는 밀양(密陽)창녕(昌寧)간과 마산(馬山)창녕간이불통이다 그밧게도 도로전답등피해가 다대한모양이며 락동강(洛東江)수위는 이십칠일오전열시까지벌서 위험수위를 돌파하고잇서 삼랑진(三浪津)부근은 칠미돌삼십삼센치나증수되여잇다 그리고 전긔시간중 경남각지우량은다음과갓다

釜山一三三粍 咸安一二一粍 泗川一三七粍 三千浦一三八粍 密陽一三四粍 三浪津一五九粍 南海一四〇粍 三淸一二二粍 晋州一八八粍 (以上號外再錄)

金海에도山崩
一名이慘死

【進永支局特電】 이십칠일 새벽두시쯤부터 폭우가 쏘다저서경남진영(進永)시내의 각하천물이 넘어들며 침수가옥이 만히생기여 밤중에 대혼잡을 일으켯다 유림정(楡林亭)부근에는 산사태가나서 선로가 파무처서 긔차가 불통되고 그외일반교통이두절되며 물이각각불어서 농작물의 피해도 상당할모양이다 그리고 김해군생림면마사리(金海郡生林面馬沙里)에서도 산이문허

舊龍山一帶浸水

저서 사람한명이 죽엇다

漢江上流增水

경긔도려주군(驪州郡)에서도 이십오일부터 계속적으로 비가나려 각하천이 불어서 이십칠일 오전여섯시 현재로 광주암에 한강의 수위는 팔미돌에 달하엿는데 한시간에 륙십센치식 붓는중이라한다 광주암내 평안천(平安川)의 평안교(平安橋)에는 다리우에 약한자나 물이차여서 리천(利川)방면으로 래왕하는자동차교통은 전부 막혓스며 하류의 남종면분원리(南終面分院里)에가는 길도 이십칠일 오전여섯시부터 교통이 막혓다한다

送電線이切斷
一名感電即死

【大邱支局電話】 이십륙일아침열시쯤 영주군 영주면(榮州郡榮州面)서 약이십척가량되는 산속에서 지난밤이래의폭우때문에 송전선(送電線)이 끈허저서 때마침지나가든 사람한명이감전되여 현장에서즉사하엿다

金海에또水亂
邑內의浸水家屋多數
龜浦와의交通도杜絶

【金海支局特電】 김해(金海)에는 비가 작구 퍼부어서 이십칠일 오전한시부터는 폭우로 변하야 오전세시에는 우량이백삼십「미리」에 달하엿다 지난번 폭우로 터저버린 김해읍내 호계천(虎溪川)금광천(金光川)등의 뚝은 그동안 개수공사를 하지안핫기때문에 물은넘어서 김해읍내는 물에 잠기집이 만하서 김해읍사무소와 김해경찰서에서는 오전세시 기픈밤중에「사이렌」소리를 요란히 내여서 소방대(消防隊)를 출동시켜 경계중이다 락동강(洛東江)물도 또 작구 불려서 락동교(洛東橋)의 수위(水位)는오전다섯시(이십칠일)현재로삼미돌에 달하엿다 일반주민들은 지난번놀란가슴이 겨우진정되기도전에 또다시 위험상태에이르럿다 김해와귀포(龜浦)사이의중요한교통도로는 막혓스며 그밧게 군내각면(面)과의교통도 전부통하지못하게되엿다 그래서 각면의수해상황은 아직알길이업다 오전일곱시까지의우량은 일백오십륙미리에달하엿고 비는작구쏘다지고잇다 (오전여덟시사십분현재)

慶北一帶豪雨暴注
醴泉、安東中心으로水害莫大
各地의交通杜絶

【大邱支局電話】 이십륙일 오후일곱시부터 동열시까지 경북일대에는 호우가나려 그중 례천(醴泉)은 일백삼십사미리、안동(安東)은 륙십미리의 폭우가쏘다젓다。 현재 락동강수위는 락동강역(洛東江驛)이 삼미돌칠십센치、달성군 화원(達城郡花原)이 륙미돌등이잇다 그리고 도내각지의 피해상황을보면 다음과갓다

▲이십칠일 오전여덜시에 안동군 풍산면(安東郡豐山面)에잇는 제방 일백오십미돌이 결괴되어 풍산역부근의전답 삼십여정보가 침수되엇는데 이중에가옥칠수 삼십호가잇고

▲례천군 대심동(醴泉郡大心洞)에 잇는제방이끈허저서 침수가옥이 팔십호에 달하얏스며 류실가옥은 삼호이다。 달성군화원(達城郡花原)방면은 증수로 말미아마 화원우편소는 현재침수하고잇다。

이밧게 안동 례천 성주(星州) 고령(高靈) 거창(居昌)합천(陜川) 의성(義城)간에는 각자동차선로가 두절되엇는데 이와가티 폭우가 계속되고잇슴으로 경북경찰부에서는 관내각처의수방단을 총동원하야 방수작업에 전력을 기우리고잇다

兩洞全滅狀態
醴泉兩平野는水國化

【醴泉支局特電】 이십륙일오후일곱시부터 열한시까지 사이에호우가 퍼부어서 오늘아침까지비 나린총분량이 백팔십륙「미리」에 나달햇다 경찰에서는 경종을요란스럽게울리며 소방조원과 수방단원들을 모아가지고 시민일동과협력、밤새도록둑을 경계하고 잇는중 교외일대에 침수된 가옥삼호가 문허지고 일호가 떠나려가고 고평(高坪)평야는 삼십만평이 탁류에잠겻고 그밧게 두동리가 전멸상태이다 담암(淡岩)평야도 이십만평이 물에 쓸려갓는데 피해는 지난번수해보다 이배나 되리라고 보고잇다 비는 작구쏘다지고잇스므로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잇다 인축의사상과 기타상황은 조사중이므로 아직 알수업다

達城水組의
堤防決潰
七十餘戶浸水、流失

【大邱支局電話】 이번에 거듭업습한폭우로 경북달성군달서면(達城郡達西面)에잇는 수리조합(水組)못둑이 흘러떠나려간까닭에 그부근수천정보의논이 물에잠겻고 따라서 그근처에잇는 칠십여호의주택도 전부침수 흠은 허무러저서 리재민들이서로울고 호소하는정상은 보기에딱하다

宜寧도水亂

【宜寧支局特電】 의령(宜寧)지방에서도 이십륙일 오후 열시부터 바람석긴비가 나리기시작하야 이십칠일 오전 열시현재로 우량은 일백삼십칠미리칠센치에 달하고 락동강(洛東江)과 남강(南江)은 삼미돌이나 물이불어서 련로각지와의 교통은 막혓다 물은작구 붓는중이다 의령읍내 남산천(南山川)은 삼미돌이나 불어서 둑이 오미돌이나 터저서 물이너머들므로 경찰서에서는 「싸이렌」을 요란히울리여 소방대(消防隊)를 출동시켜서 방비공작을 하고잇는중이다 비는작구 쏘다지게되면 의령읍내시가는 물난리를 맛날염려가잇다 신반(新反)남산회로부터 십미돌이 문허저서 가옥한채가 너머젓다

慶全線과
松麗線不通

지난이십사일밤부터 다시퍼붓는 지리한장마로 말미아마 서울은 물론 지방각지에도 다시물란리를맛나게되여 얼마쯤안도되엿든 경향의 인심은 다시소란되고잇다。 따라서 남쪽조선지방을중심으로철도각선로도물에잠긴곳이 상당히 만허저서 지난밤이래로 도다음과가튼불통을 보게되엿다

【1】……삼랑진—락동강(三浪津—洛東江)사이 삼랑진 긔점 한「키로」부근에잇는 철로둑이허무러젓고 또유림정—진영(楡林亭—進永)사이 삼랑진긔점 십사「키로」부근 삼백「미돌」사이에잇는선로도 물에 잠기는 동시 그둑 사십「미돌」이 끈허젓기때문에이십칠일 오전다섯시 부터렬차운전을 못하고잇는데 아직복구될 가망이업고。

【2】……이천—반성(耳川—班城)사이 삼랑진 긔점팔십륙「키로」부근도 철로둑이 허무러진 것을 오전다섯시십분 진주(晋州)를 떠나 부산으로가든 렬차가발견하고 진주로 되도라가 어찌할줄모르고 멈추고잇다

【3】……또 군북—원북(郡北—院北)사이 삼랑진 긔점칠십삼「키로」부근도 선로가 끈허저서 불통이 되엿기때문에 각렬차는 군북—마산(郡北—馬山)사이로 되집어서 운전중인데 비는점점더퍼붓고잇서 오후열한시에나 개통을보게될모양이며

【4】송려선(松麗線)미평—쌍봉(美坪—雙鳳)사이 려수과 정십의「키로」부근 일천리방「미돌」이 떠려저나가서 선로를 파무더바리고말엇다 이것도 아직가태서는 복구될희망이적은데 덕양(德陽)미평사이에짐짝만은자동차로련락을취하고잇다

漢江刻刻으로增水
警戒水位를肉迫
龍山、麻浦에는벌서避難騷動
浸水家屋이百餘戶

련일끄칠줄모르고 나려퍼붓는 두벌장마비로 한강은 방금계속해서 물이불어가고잇는중 이십칠일오전열두시현재로한강인도교 아래가 일곱「미돌」오십오、옥천(沃川)이 여덜미돌구십삼나달하고잇서 지난번 최고 수위에 육박하려하고잇다。 따라서 룡산서관내에는 간밤래로 물에채인 집이 작고느러가는중인데 이십칠일오정때까지

▲元町三丁目床下一戶 ▲元町四丁目床上十四戶、床下十戶 ▲屋上九戶、倉庫六戶 ▲桃花町床下六戶 ▲麻浦町床下七戶、屋上一戶 ▲山手町床下六戶 ▲土亭町床下三戶 ▲龍江町床下七戶、倉庫七戶 ▲倉前町床上六戶、床下一戶 ▲新水町床上八戶 ▲東氷庫町床上三戶、床下一戶 ▲西氷庫町床下一戶 ▲漢江町床上二戶、床下二戶 ▲金湖町床上三戶、床下二戶

등으로 이뚜럭게 물란리를 당한일반 리재민들은 다시 세간짐을 다른곳으로 날리가는등차 모번석들을 치고잇서 그처참한 광경은 실로 눈을바로떠 볼수 업는현상이다。 그리하여 룡산서에서는 수방단원들을 풀어서 리재민들을구호하기에 활동하는중이다。

纛島增水
水防團猛活動

【纛島支局電話】 이십칠일 오후 두시 현재로 뚝섬부근 한강수위는 팔미돌십이에 달하엿는데 아직도 더욱 증수되고잇다 밧(田)으로들롭은 나즌집은 발서부터 침수되여가는중인데 이제 한자 다섯치만 더증수되면 뚝섬충호수의밤분인 오백여호가 침수되리라고한다 륙십여명 수방단이 출동하여 잇고전번수란에 놀난 주민들이라 발서부터 피란준비에 분망하다 뚝섬과 왕십리 사이는 배로서련락하고잇다

京軌一部休止

경성궤도차(京軌車)는 이십륙일 밤부터 살꼬지다리(箭串橋)에물이넘어도선련락을하게되엿슴으로 이십칠일아츰여섯시반부터 왕십리(往十里)동대문(東大門)사이만 운전하고 뚝섬(纛島)행 운전은 중지하고잇다 광장선(廣壯線)도 가튼날아츰부터 도교(稻橋)광장(廣壯)사이에 차한대로 되도라 운전하고잇다

各地雨量

【仁川支局電話】=仁川觀測所發表=칠백삼십사미리의 태풍은 상해(上海)의 동남쪽 삼백키로의 지점에잇서서 시속십키로의 속력으로 조선남해안을 향하야 진행하는중이다。 이태풍은 늦저도 이십칠일 저녁때까지는 조선남해안을 엄습할터인데 이러케되면 중부에는 호우가 내릴터이고 남부에는 맹렬한 폭풍과함께 호우가 잇슬것임으로 남부연안은 경계를요한다 이십칠일오전 륙시까지의 전조선각지의 우량은 다음과갓다

▲中江鎭 一미리 ▲新義州 三 ▲平壤 三 ▲仁川 九五 ▲京城 八八 ▲全州 六 ▲木浦 七九 ▲濟州島 一二一 ▲雄基 八 ▲城津 一八 ▲元山 四八 ▲江陵 六八 ▲秋風嶺 三〇 ▲大邱 四九 ▲釜山 四 ▲蔚山 三五

그리고 이십칠일밤에태풍이 조선남해안을 거처간후에는 명일부터는 날이개일듯하다

昌信町에强盜
食刀로主人을刺傷
犯人은前科二犯의廉在榮

이십칠일오전아홉시경에 시내창신정(昌信町)삼십이번지의 십호강화중(姜和中)의집뒷문으로부터 어떤자가 침입하야 부엌에잇는 놋그릇다섯개를 훔치가다가 몰이얍허누어잇던 주인에게발견되자 고무여에잇는식칼로 주인의얼굴등 수개소를찔러서 중상을입히고 도망하는것을 동대문서동묘(東廟)파출소에 근무하는 강정희(姜定熙)순사와 국지(菊池)순사가 추격하야 일대격투끗헤 체포하엿는데 본서로 뭇거가서 취조한결과 범인은본적을「시내효제정(孝悌町)에두고 일정한주소가업는 전과이범의 렴재영(廉在榮)으로판명되여 여죄를 계속취조중이다

三浪津進永間
豪雨로列車不通

【馬山支局特電】 이십륙일밤부터 나리는 폭우로 말미암아 삼랑진(三浪津)과 진영(進永)사이의 철도련락은 불통되여 이십칠일 아츰부터 긔차는 운전불통이다

天氣豫報

概況 颱風은 東中國海北部에잇서서 中心은 七三五內外미리를示하고 北進하고잇는데 北東으로 轉向하야 半島南岸으로 進行할模樣이다 高氣壓은 北滿에 七六二미리 小笠原諸島附近海上에 七六〇미리를示하고잇다 北滿은 날이맑고 南鮮國境地方은 흐리고 東風이 强하고 中部以南은 흐리고 비가오고 西日本內地 흐리고、關東以北은 비가온다

豫報 오늘밤은 北東風이불고 비가온다 明日도 北西風이불고 비는계속되다

昨日最高 二三度二 同最低 一八度七 今朝最低 一五度六 今日正午 二二度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阿峴 本舖 普生藥房

매독 심히하게근치되는 매독내복약 オネスピロチン 定價五円 七円 京城南大門通一ノ三 大同製藥社

朝鮮唯一의藥 醫學博士 KODERA 推奬 萬病藥水 藥効顯著 與論證明

補材藥水 EBISU FUKUHOO 解毒、身體强壯、神經衰弱、半身不隨關節痛 其他强壯劑
에비수疥瘡膏 金五十錢
에비수補材膏 金五十錢
에비수金鷄納 金二圓 一圓
皮膚病良藥 비수사로—루
淋病藥 超越淋藥 ¥5.00
痔病良藥 痔疾劑 五〇錢
藥品注文할時는(반다시) 釜山府本町五丁目 에비수藥院 EBISU 振替釜山三三二四番
▲僞造藥에注意! 이라고써서、편지하여주시요 丸藥、錠劑를만병약수라하고販賣하는者가잇소 水藥、만병약수가眞正品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二三四番)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POL映畫と高級伴奏
二十七日ヨリ五日間 豪華三本立
▲アンナ・カレニナ メトロ グレタ・ガルボ主演
▲キャバレエの鍵 六卷
▲あるぷす大將 PCL
大日本每日第七報 オリムピックニュース

中央館 永樂町 (電本二三一番)
來る廿八日より大公開 新興特作名畫デー 大衆特別御禮奉仕料金 階上階下均一大人卅錢小人廿錢
第一回午前十一時四十分 第二回午後二時二十五分 夜之部同七時ヨリ
新興キネマ大衆超特級篇 大阪朝日新聞連載小說 原作 室生犀星 監督 勝浦仙太郎 音響版 聖處女 高野由美入社第一回主演 立松晃・江川なほみ・淸水將夫助演
新興キネマ京都超特級作 原作 巽龍吉 新月 深川祭 千代田勝太郎主演 白石明子・松本泰輔・池紋子・田津子助演
次週 九月二日 魔像 ばらな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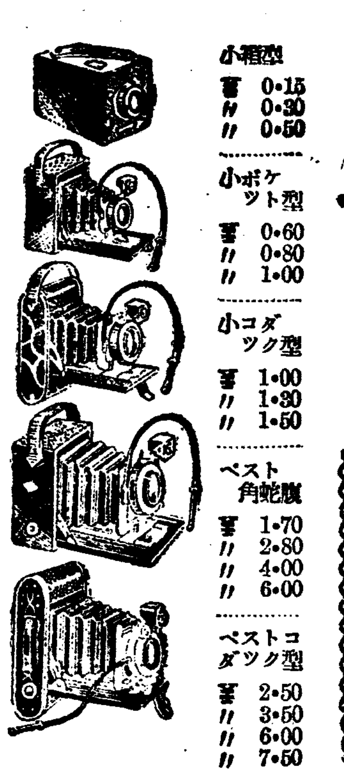
第一劇場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
八月卅六日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名畫特別提供週間 每日三回晝夜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繼映 夜間八時始映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람바—트、히리아氏監督 大活劇篇 爆彈도라크 오레스포—드氏主演 마리안마쉬
松竹蒲田傑作品全發聲 名匠五所之助氏監督 現代名篇 人生のお荷物 田中絹代孃主演 蒲田올—스타—助演

浪花館 八月二十六日より九月一日まで 上映時間表
バージニヤ・ブルース ロバート・テーラー主演 歡樂の女王 12·00 3·21 7·10
朝日オリムピクニュース 第三報 1·10 3·10 4·30 8·22
夏川大二郎・高杉早苗主演 自由の天地 1·21 4·40 8·35
入場料金 40錢 60錢

◇八月二十七日부터晝夜三日間 午後一時밤七時四十分始映 朝鮮이나흔最高의藝術映畫! 滿南映畫社超特作映畫! 무지개 (漁村篇·都會篇) 監督…李圭煥氏 特別出演…文藝峰孃 出演名星…金素英孃…獨銀麟 張赫…李遠…楊白羅…卞鍾根…宇吉平…孫一圃…朴齊彬 五色이玲瓏한바다의叙情詩! 自然과人生을如實히結合식힌名篇! 이땅의苦惱호리지는暗雲속에서빗나는福氣를기다리는사람들이 것이무지개를果然히 언제할가?
滿洲映畫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戀愛活劇 부론도의꿈 監督…바올루친氏 主演…리리안·하부에이孃 우이리후헷氏
朝日世界뉴—스 全
麻浦桃花町 電龍三三番 桃花劇場

躍進朝鮮의 世界第一位[illegible]孫南両君万歳

優秀·精巧하고도安價!



小箱型 0·15 0·30 0·50
小ポケット型 0·60 0·80 1·00
小コダック型 1·00 1·30 1·50
ベスト角蛇腹 1·70 2·80 4·00 6·00
ベストコダック型 2·50 3·50 6·00 7·50

プリンス號
大名刺 24·00
小名刺(A) 18·00
同 (B) 10·00

特約店 一邑一店에限함

●가다로구要二錢
●仕入은直接製造元에서
●商號는店名스탬프捺印後申込하시라

特約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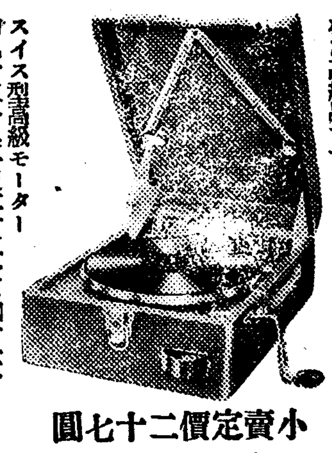
右記特約店에가셔서 사시면 그곳에서사시는것이便利합니다

京城府鍾路二丁目 三郎寫眞館
黃海道海州邑南本町一四 (電話二一七) 安東商會
咸北淸津府新岩洞 昌盛商店
黃海道載寧邑文昌里 海星寫眞材料店
全北井邑郡井州邑市基里 德興商會
江原道春川郡新南面漆田里五六〇 大陽堂 崔星根商店
咸北羅南邑西本町 東野文華堂
濟州島邑門三徒里二衙洞 金華玉商店
忠南溫陽溫泉 崔春明商店
平壤府上需里一三五 モダンカメラ店
忠北淸州本町 信一商店
忠南瑞山郡安眠面承彦里 安眠島商店

製造元
東京カメラ製造所
名古屋市東區大津町五丁目・振替名古屋五〇〇七番

代理店 安東商會 黃海道海州邑南本町一四番地(電話二一七番)

鮮滿擴張記念大特賣
バージニア號高級蓄音器特選二種



斷然追隨を許さぬバージニアの誇り
バージニア一〇〇番
見るからに立派で音量豊かで研究に研究を重ねられた高級品です
スイス型高級モーター
巾九寸五分奥一尺二寸五分厚四寸六分
モダン好みな超價秀品
小賣定價二十七圓
紀念特價十三圓

構造明細
一、七分尺長二連ゼンマイ高級スイスモーター
一、ラブランスウイック六八番型圓管喇叭
一、特殊重音裝置反響板ステー及コロンビヤレコードカルトン付

流線型ポータブル二〇〇番 好評嘖嘖
高く…低く…甘く…柔い…肉聲さながらの陶醉境
定價…金四十圓の品
紀念特價…金十八圓

大卸相場で蓄音器が買へる…………
……好機絶對に逸す可からず……
……品質は責任保證付……
(特約店募集……希望者ハ御申込次第カタログ規則書進呈シマス)
御註文方法　初回御取引ノ方ハ前金三割以上御註文ト同時ニ手附金トシ殘金ハ品物ト引換ニテ御支拂ヒ下サイ　送附御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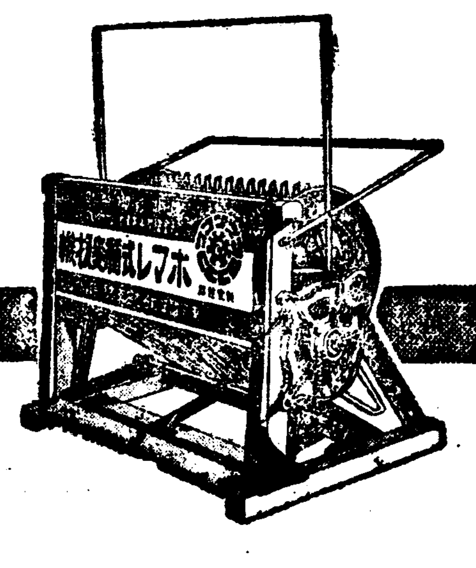
蓄音器 バージニア號 製造元 (KKC) 春日商會
名古屋市西區江川町一丁目　電話西局四〇三九番　振替名古屋二二一八七番

農林省畜産局御奬勵 全國農會共進會賞受領

ホマレ式稻扱機

最新型 十四枚扱機

品質本位……をモットーに一昇も無調して材料と入念正確な技術に依り堅牢に軽快に製作せられた本機の優秀なる事は既に定評ある所であります して各方面に於て絶大な御賞讃を蒙りまして居ります



(特約店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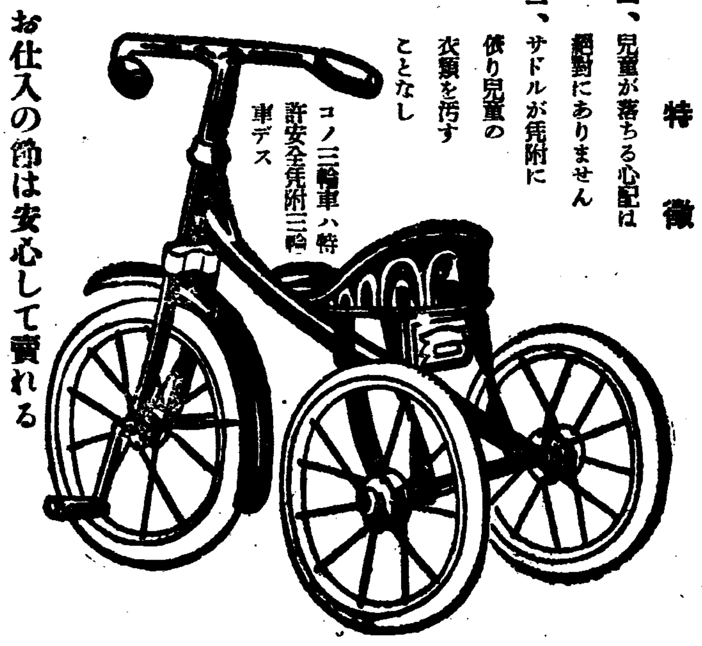
(製造發賣元)
名古屋市西區志賀町
圖金社
電話東七八一二番

千九百三十六年以後の兒童界の子供三輪車は特許安全凭附三輪車に限ります

特徴
一、兒童が落ちる心配は絶對にありません
一、サドルが凭附に依り兒童の衣類を汚すことなし

コノ三輪車ハ特許安全凭附三輪車デス

お仕入の節は安心して賣れる特許安全凭附三輪車はキツト お氣に召します
(店印ある方に限りカタログ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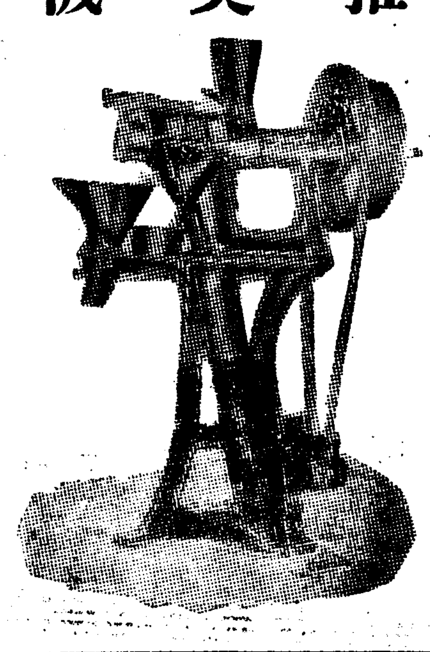


野球號
子供三輪車製造發賣元
御問屋
吉田良三郎商店
營業所 名古屋市中區大井町一五一番地
第一工場 名古屋市西區菊井町三
電話南局 六六〇四番
振替名古屋 二八四三〇番

絶對無砂搗
特許 專賣
ウエダ式精米機
農林省比較審査甲位入選
全滿米穀同業組合
推奬機

第三回帝國發明表彰有功賞受領
第十三會發明協會地方表彰優等賞受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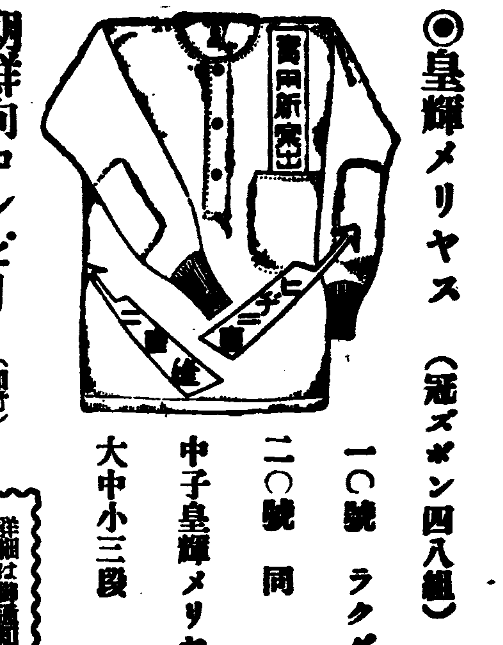
本機에依하지안코水晶米
胚芽米、無砂米는어들수업다



(精白見本進呈)
名古屋市西區泥江町二丁目
服部商店
電話西局一七七六番

秋冬物一齊荷揃

自家工場獨特製品直接販賣
名實共に世界的優秀なる!!
實用防寒向特製二重縫ヒザ二重
◉皇輝メリヤス (冠ズボン四八組) 一打値段
一〇號 ラクダ色特厚地 九圓
二〇號 同 薄地 九圓
中子皇輝メリヤス 腹卷モモ引付
大中小三段 五圓三十錢



朝鮮向コンビー (領付)
大中小段 一打 二圓九十五錢
特大 一打 三圓八十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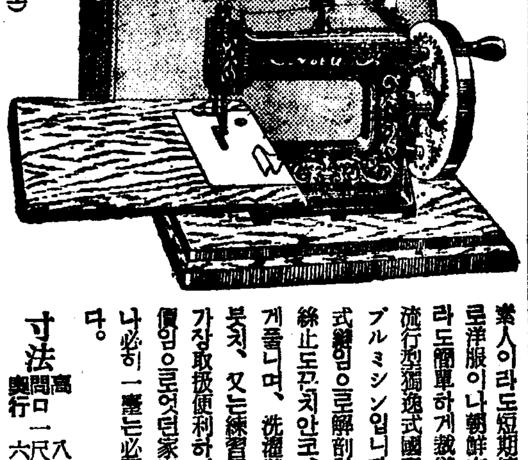
半金御送附の上御用命を
詳細は御通知次第カタログ進呈
素人ノ紹介お斷り

メリヤス 洋品雜貨 綿布織物
現金問屋
(憲)
増田商店
名古屋市東區新外堀町八丁目
電話東三一一八番
振替名古屋二三九八一番

(榮)
三浦製帽所
キクイカリ印
帽子製造發賣元
國防色學生帽子
大宣傳特賣!!
鳥打帽子 (實物全揃見本進呈)
御申込次第冬物總カタログ進呈
名古屋市東區花田町
電話東局二五六五番
振替名古屋一五一一五番

結核病者煩悶하지마라
治療上 國家的 皇漢藥
肺治湯
是迄いろいろの服薬と効果なくお困りの方へ實際にキク全くキキメの早い良薬をおすすめします服薬者は皆大喜びです
藥價 十日分 三圓 二十日分 五圓 三十日分 七圓 (外送料十二錢)
御一報次第説明書無代進呈
名古屋市中區七本松町二丁目
キクヤ藥局
振替名古屋二三三八番

ノーブルミシン
大特賣一臺九圓五十錢
一臺의小包送料一圓〇五錢
(説明書進呈)



素人이라도短期練習으로洋服이나朝鮮衣服이라도簡單하게裁縫되는流行型獨逸式國産ノーブルミシン입니다 單式縫目으로解剖할제도絲止도잘되지안코、손쉽게풀니며、洗濯鏝、뎀봇치、又는練習用等에가장取扱便利하며、安價임으로어던家庭에서나必히一臺는必要합니다。
寸法 高入寸五分 間口一尺〇五分 奥行六寸五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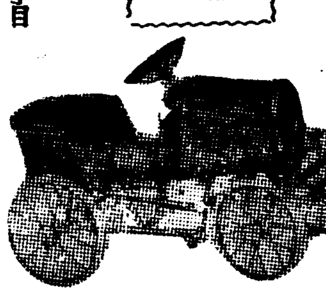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振替名古屋一〇三七七番

萬年筆
無代進呈
斯界に一大革命を惹起した新製品で面白い程良く賣れます一打以上御注文の節は一打毎に一本宛無代進呈致します
一打二付金六圓也
見本を御入用の方は三錢切手二十枚封入御用越下さい定價一圓二十錢の品を即時急送致します

五ケ年保證證書付 特殊合金ペン付 高級實用萬年筆
高級エボナイト軸、書き良い點 持ちの良い點 三、四圓の品と少しも變らない大好評の
新製品 (カタロク贈呈)
名古屋市東區石町二丁目
三京商會
電話東二六七九番
振替名古屋二三一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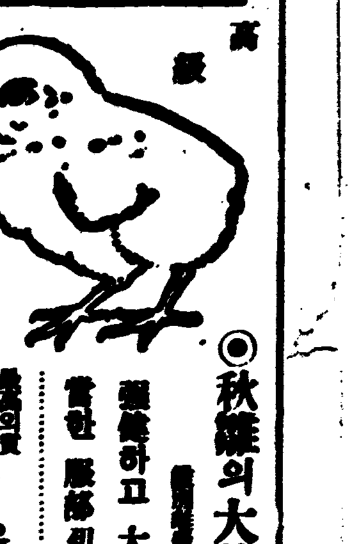
사는사람이도여
朝鮮第一主義로販賣
生産價格本位

小供乗物各種
新案特許 乳母車、用格折疊乳母車、籐乳母車、小供自動車、三輪車、籐椅子及部分品一式
製造發賣元



名古屋市東區駿河町二丁目
米澤屋商店
電話東局五六七一番
振替名古屋一七〇四一番

服部の初生雛
高級



◉秋雛의大特價提供
强健하고 大羽大卵長期의 多産에 適當한 服部初生雛를
各府縣畜產組合 農會 農學校 農事試驗所 御用達
高級 中雛若雛拾萬羽特價分讓
名古屋市中區繁榮町地付十六
服部養鷄孵化場
電話南一四七三番·振替名古屋二一五七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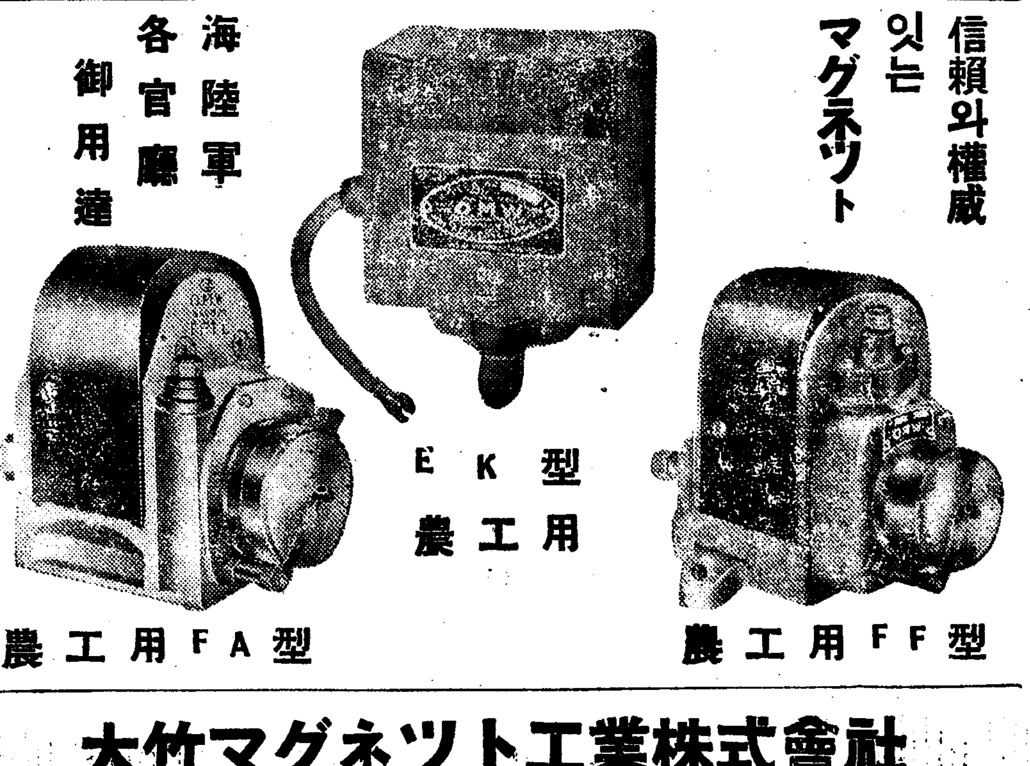
斯界の權威

型錄呈·特·代理店募集

營業品目
……◇……
特許水道ホース接手各種
ガソリンランプ各種
ガソリンコンロ各種
石油ランプ各種
瓦斯器具第一式

海軍工廠通信局指定納入
名古屋市中區沢町五丁目
合名會社 柴田商店
電話南⑥二一一三
振替名古屋一三二一一

優良國產 O.M.W.
海陸軍 各官廳 御用達
信賴와權威잇는 マグネツ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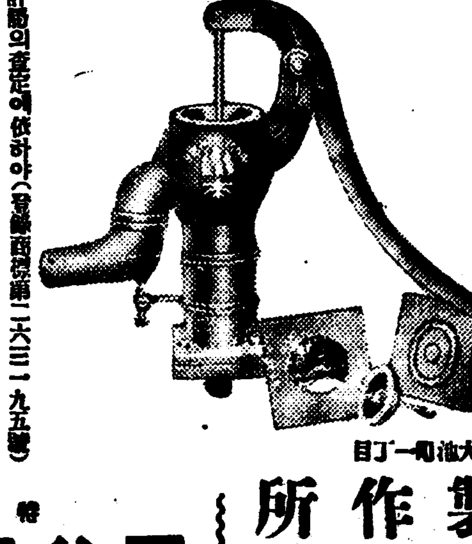
EK型 農工用
農工用FA型
農工用FF型

大竹マグネツト工業株式會社
名古屋市南區熱田東町高藏町九四
電話南三三九四番・振替名古屋一四五六一番

川本式ポンプ
TRADE MARK
實用新案216835號 付ブラバルプ水塗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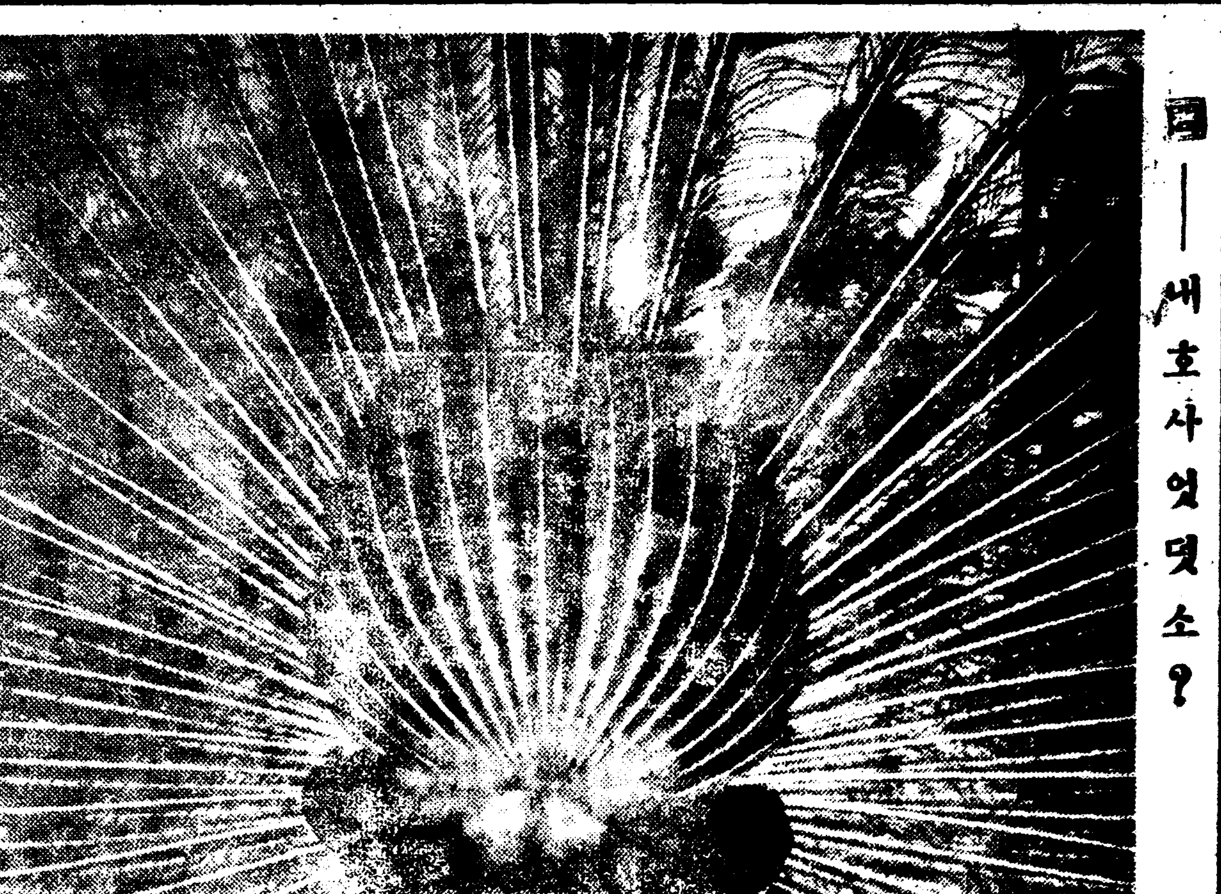
好評! 滿天下의「ポンプ」界를斷然「리ー드」한다
全國到處에信用잇는機械、金物、ポンプ店에잇슴

注意!
今般特許局의査定에依하야(登錄商標第二八三一九五號) 川本式이라는字句도商標로公告되엿다가되엿고 從來製作所에서는 全部「川本式」이라고明記하엿슴니다
眞正한「川本式」ポンプ는 印ポンプ는製作을廢止하엿슴니다
印外에는업슴니다



名古屋市中區大池町一丁目
川本製作所
振替名古屋二五七二番・電話中局四四五番
カワモトポンプヤガンブホセトモ

特約店
岡谷銅物部



目——새호사 엇뎃소?

눈ㅅ병예방에는 소곰물로씻자

—봉산수보다나은편—

여름은 자외선(紫外線)이강한때임으로 얼골이나 살이새ㅅ가마케 끄는것입니다 이자외선이라하는것은 피부와 몸에는대단히조흔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험점은 이광선은 사람의눈엔 대단히 해로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름을 지나고나면눈병에 걸여서눈알이새ㅅ빨리앗던지 눈곱이끼여서 지저분하게되는것입니다 증세가중하면 물론의사에게 보이여서 치료하는것이조치요만 가벼운증세에는 자택에서 치료하야도됩니다 지금까지 눈병에는

봉산수(硼酸水)로 씻치는것이 보통이엿스나 이것은피부가상하기쉽습니다 그럼으로 요사이는 만히소곰물쓰는것입니다 소곰을조곰탄 물로 아침마다 눈을씻쳐주는것은 예방으로 옛날부터조선서 써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곰물로눈을씻는데도 불결한 입안을씨처가지고 그물로눈을 씻치는것은 아모리생각해보아야 괴벽에갓갑습니다 그러므로지금부터는 소곰물로눈을씨치는데도 눈을 씻기위해서소곰물을차만하야서 깨끗이한 다음소곰물을 허끄레대여 보고 조곰짜군맛이 잇으면 그물로눈을씻처도 조습니다 그런데이것을더욱 효과잇게하기 위하야는물을 더웁게하야 눈가이데아지안흘 정도로『깨끗한수건에 적서서 아침저녁 하로두번식 눈에더퍼두는 것입니다 그냥냉수로씻치기 보담더운물로하면 충혈되부분의 혈액을한곳에 모두어서 신체자신이 모질사히 업시계속하고잇는천연료법을 도우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치료법이 효용이속하고 안전하며 대개는 한입주일계속하면 낫게되는것입니다 다 어린이의 눈병도 상하시기가되며 학교에가기전에 어떠케 치료하야 보내도록 하는것이 좃습니다 학교가기시작되면 치료하기도 불편하면 증세도악화되기쉽습니다

추야장 기나긴밤 정다운 저 등ㅅ불

그러나 안력을 달내기 쉽다 잘못하단 근시나 원시

벌서 가을긔운이 듭니다。 가을은 특별히 등ㅅ불을 친하는 철이랍니다 그전에는 그저등ㅅ불이라면 초나 기름이지오마는 지금 와서는 아조 등에ㅅ수석이 아닌이상 거의 다 전긔입니다。 도등불로 논할진댄 첫재 밝고 둘재 편하고 셋재 싸고전긔보담 더 이상적인 물건이 업습니다。 그러나 전긔등도 역시 켜는 방법이 잇습니다。 그 방법을 모르고서는 눈을 버리기쉽다는말입니다。

촉수

얼마만큼 밝아야 되랴가 위선 문제되지 안할수 업습니다。 위생적으로본 최소한도의 촉수는 십이촉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잇고 십촉까지 상관이 업다는 학자도 잇습니다。 그러나일을따라서 혹더 밝아야 필요할것도잇고 좀더밝아서 무방할것도 잇습니다。 그래서 아조정세한일에는 오륙십촉이라야 되고 그이하로 차차 줄어서 사십촉 삼십오촉 삼십촉등으로 나려 갑니다。 물론이것은 보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전부 어느경우에나 맞는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방의대소를 따라서도 관계가잇고 또 그 사람의 시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잇는까닭입니다。

조명

조명(照明)을 하는데도 멧가지의 방법이 잇습니다。 직접으로 불비츨 밧는 것은 직접조명이라고 하고천정이나 벽에다가 불비츨 반사시키어 다시 밧는것을 간접조명이라고 합니다。 직접조명은 등불의 위치를 마음대로 옮길수도 잇고 또 적은 촉수를 최대한으로 이용할수잇는반면 간접조명은 외방안에 불비치 고로 퍼지고 또 그불비치 부드러워서 눈에조흡니다。 즉 직접조명은 경제적으로 리롭지만 위생적으로 간접조명만 못하고 간접조명은 위생적으로 리롭으나 경제적으로 직접조명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중간으로 반간접조명이라는것을 발견하얏습니다 그것은 등ㅅ불아래를 반투명(半透明)의 그릇으로 떠서 일부분(一部分)은 직접으로 바사시키고 일부분은 그그릇을 통하야 직접밧는것입니다。 이방법은 매우 조흔 방법입니다。 다만 그그릇에 몬지가 끼어서는 도리혀 재미가 업습니다。

요깬

하여튼 등ㅅ불의 조건으로서는

(一) 힘들이지 안코 볼수 잇서야 되는것

(二) 어지럽지 안코 볼수잇서야 되는것

(三) 강한 그늘이 생기도록 되어서는 쓰지 못할것

(四) 몬지나 때로인하야 광선이 방해되지 말것

이상의 네가지 요깬을구비치 안하서는 안 됩니다 요사이 근시니 원시니 난시니 하야 젊은신네로도 안경이부실한이가 만흔 것은대개 등불관계로 볼수 잇습니다。

긔타주의

책보는데나 일하는데만 비치고 다른데가 어두어서는 눈에 나쁘니 외방안을 똑가티 비치어야만 되다고주장하는 학자가 잇스나 실상 어듸는 밝고 어듸는어두워서 서로 대조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몹시 빗나는 등ㅅ불을 보는 바람에 눈동자가 급작스러이 수축(收縮)되는 것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담도 등ㅅ불에다가 불투명 반사긔를 대어 광선이 직접눈으로 오지 안코 일거리나 책으로 떨어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법때문에 도리혀 불건강

〃아모리 영양분이만키로 억지로 먹는수야잇나?〃

영양학자에게도전하는 라이스博士의말

의학이 점점발달되고현대인에게 위생에대한관심도커가는것이 사실이라고볼수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이문제에 대하야 한번 생각해보면 의학이 발달되엇스니 병은 주려야 할것이고 일반의 건강도 전보다 나어야 할것입니다 만은 도리혀 그와 반대의 현상으로 전에못보든 새병이, 생겨나고, 건강상태도 예전사람만 더못해가니 웬일일까?——이것은 전문가아닌 보통사람들도 늣기는바이지만미국『인디아나』주청위생과(州廳衛生課)의『써—만 라이스』박사는 대단히 흥미잇는 의견을발표하엿스니 『참으로 내몸을 건강하게하고십거든 세상에서 뒤떠드는 건강요법이니 뭐니하는것을 지버치고 하지마라야한다』 하는 지금까지 모든의학자들이 정설로알고 지나오는 건강법에대한 역설적(逆說的) 주장을하여 소위 영양학자들에게 한설싸홈을 걸다시피햇습니다。 박사의말을 빌면 이러합니다——

『도대체 식이료법(食餌療法) 영양식(營養食)이니 하는것 다무엇이냐。 이러한건강법이 도리혀 사람의건강을 해롭게하는것이다。 즉불건강하게하는것이다。 먹기실흔싱금초라든지、토마토가튼것을 억지로 뱃속에 쑤시어 너어야만 건강해 진다는 그런 어리석은말이 어데잇는가。 무엇이든지 누구나 자기가먹고 시픈것이거든 먹어라。 영양이니 뭐니 개념할것업시먹고 십흔것을 맛잇게먹으면 그것이 살로간다。 살가면 살이찌고 능률이 오른다。 그럼으로 내가 권고하고시픈 건강법은 종래의 허다하게나려온 건강법을 깨끄시 이저버리고 마음에 맛는음식 마음에맛는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잇다』

이말을듯고보면 전문가아닌 우리네에게도 그럴듯하다。 요새 영양학자들이 뒤떠드는것을보면 자기가정、자기민족의 관습과기호만표준햇지 남의 나라사람의 체질、습성、기호는 전혀무시한것이 만흔데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 인것처럼되고 그약방문』인것처럼되여 세상에 퍼저잇습니다 일례를드러말하면

『결핵성환자、영양부족인사람은 우유 빠터—술、심듬초、게란노란자우 이런영양분잇는것을 먹어야된다』

조선사람처럼 우유니 빠터—니하는것에대해서 비위에 안맛는사람들은 어떠케 할것인가?。 그리고 이런것이 서양사람과 달라조선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이되어잇지못한데 어떠케합니까? 그런즉 조선에 영양학자가 잇다고할것가트면 조선사람이 먹는음식물가운데 어느것에 영양분이만코、영양소가 만흔지 연구해서 조선사람의 구미와 비위에 맛는 영양식을 맨드러 내야할줄밋습니다。 고초장、된장、콩나물、마늘장아찌 그외 우리네가 먹는 음식가운데 영양소『비타민』이얼마나 잇슬찌 한번연구해볼문제입니다。

맛잇슬때먹을 소고기와 생선

잡은뒤언제가조흘까

소고기나 도야지고기를 아주 갓잡은것은 고혼늡흥비치나고 살도단단합니다 어째그러냐하면 사람의몸에나 다른동물의몸에나 효소(酵素)라는것이잇서서 이것이 단백질을 용해하는작용을하고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몸통이는 단백질로된것인데 어째서 용해되지안느냐, 즉 녹아업서지지안느냐말습입니다。 ……여기에 조물주의묘한것이잇는것입니다 그것은 항효소(抗酵素)나는것이 우리몸에잇서서 이것이 사러잇는동안은 효소란는것이 단백질을용해시키지못하는것입니다。 소、도야지、닭고기는 난도질을해노흐면 벌서 항효소가업서저버리기때문에 날이갈수록 단백질이용해되어 살이연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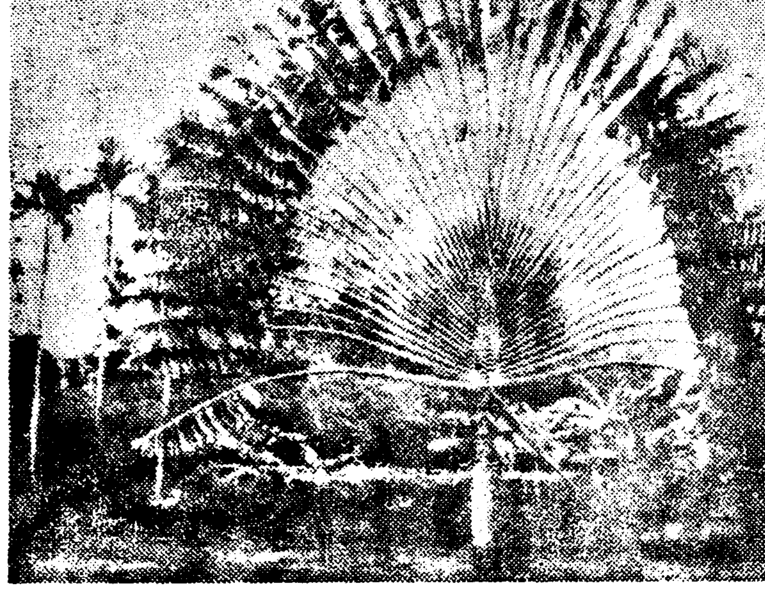
이것으로보아 갓잡은 고기는 단단하고 너무연한고기는 오래된것이라고 볼수잇습니다 소고기일것가트면 살을잡어나 흘흠지난뒤가 제일맛이잇슬때입니다 그런데 너무오래되어서 상햇다고볼수잇는고기는 비치검푸르고 손끝락으로질러보면 훌훌드러간자리가 되나오지 안습니다。 그러치만 성한고기는 탄력이잇서 금방되나옵니다

그다음、생선은 소고기와달나 처음부터 살이연해지고 상하기가 쉬움으로 될수잇는대로 눈이깨끗하고、살이단단할때먹어야 조흡니다。

놀라운영양가치 옥수수

비타민A·B·E……

옥수수는 가을철에누구나질겨먹는것입니다 그것을대수롭지안케 녁이고 그냥아이들 용용이로만 생각하나 이것은 영양가치가여간만흔것이 아닙니다 옥수수는 『비타민에이』와『비타민삐』등의 조흔영양이 포함되여잇슴으로 아이들 용용이뿐 아니라 어른들이먹어도 여간 조흔것이아닙니다『비타민에이』는 여름을타서 더위에 상한사람에게 조코『비타민삐』는 각귀앓는사람에게 조흐며 『비타민이』는 남녀의생식기능을 도웁는데 효과가잇습니다 또한 단백질과지방과함수탄소들의 영양분도 상당히만흐며 옥수수수염 삶은물은 신장염에 걸인사람에게 조흔약이 됩니다 옥수수는 너무지나치게 익은것은 맛이덜합니다 그러므로조곰 덜익은놈으로 물에 꾸어서먹는것이 영약에는 제일조습니다그러나 만히먹는데는 쩌서살며먹는것도 조치요 섬위가만흔것이혀이며 소화가 잘되지안흠으로 될수잇는대로 씹어먹도록 하지안흐면 안됩니다 좌우간 가을한철의 영양과 향토정취가 가득한 보배로운곡식입니다



우리차지

우리영례이는 퍽 약은아이인데두나이가어려서 아직 돈의셈속을몰라요。아저씨가주신 오십전짜리를 우리들하구 가티 노나갓자니까 마다드니 오전짜리 서푼하구는 얼른 박구젯나요。

(동순사립 배상준)

철에맛는중국료리

—한번해잡서봅시요—

가을에 한창맛잇는 중국광동료리한가지를 소개하겟습니다。 『황게욕핑』이라는것인데 맛도조코 볼품도조와 손님대접과밥반찬에게 솜씨자랑으로 그럴듯한 료리입니다。

番茄肉片(황게욕핑)

재료=도야지고기 오십돈메、죽순간쓰메、참나무버섯、파、토마토、기름、의이가루、소곰、호초、술、솝、진간장

료리하는법=도야지고기를 폭이너른、기리한치되게 얇게비고、참나무버섯은 물에울거노코、죽순은 간쓰메통에서 끄내어 알따하게썰고 토마토(일년감)는 너무익어 살이흐물、흐물하지안은것을 껍질벗겨 깍두기무칠듯 써러노코 파를써러노코 생강을잘게의여노코 중국채소장사가 팔러다니는분콩(隱元—껍질채먹는것)을 오분기라로 채처놋습니다

이런준비가 다되거든 남비에 기름을 조곰붓고 끄리는데다가 의이가루를 반죽해서 거기에도야지고기를 무처내어 (전유어지질때처럼)그것을 기름남비에 떠려드립니다。 그리고는 빨리 그것을 저어서 지집니다 고기의 표면이 하야케되것거든 기름항아리에 석시가튼것을 올려노코 고기를 건저그우에노아 기름이 빠지게합니다 그리고는남비에잇는기름도 항아리에 도루붓습니다。

그다음에 그남비는 기름을타거버리지말고 그안에 먼저 준비한 야채를 너코 생강을 약간처서 조립니다

그다음에는 기름에 조린약가 그 고기를 거기에 마저 너코 술 약간과 솝 (닭삶은 물이면 더욱 조치요) 을 붓는 데 솝은 모든재료가 잠길정도로붓습니다 그리고 소곰、호초가루 진간장세가지를합처 간을보아가지고 의이가루를 차사시로한수까랍물에탄것과 함께남비에붓고 빨리저어가면서 모든것을익힙니다 얼마지나면 그속에든의이가루가 익어서 풀여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때되거든 얼른남비를불에서 내려 그릇에다 옮겨부어노코 뜨거울때먹게합니다 그런데주의하실것은 료리맨드실때 고기를너무익히면 딴딴해집니다 그리고 『솝』을붓고 끄릴때도 얼른의혀야하며 의이가루가 너무만히드러가면 맛잇는국물을 모두빠라드리니까 적당한 끈기가잇게너토록하십시요

나도 당신만하오

아푸리카『마다가스칼』이란 섬에서나는 나무가운데나 그네의나무(추래블러!스·추리—)라는 나무가잇습니다 나무라기보다풀에속한것인데 공작새가 꼬리를편것처럼 조선의합죽선을 편것처럼생긴것습니다

海外토픽

여든한살된신부

요지음미국칼포니아주에서는 두쌍의로인결혼식이 열니엿답니다 한쌍의 신랑은 칠십한살나는『푸랭크·레·리—』라는 로인이요 신부는 칠십한살 되는『메리—』라는 늙은이라하며 또한쌍은『루이스』라는 칠십한살되는로인 신랑에『마가레트』라는 팔십한살되는 늙은 신부라합니다 웬만하거던 두신랑이지 그나히에 무슨망녕입니까

앞은곳에발느면곳낫는

夏節의 常備藥

고통이심할때 응급치료가되나니 앞은곳·부은곳·쑤시는곳·멍든곳·피곤한곳에 조곰발느면 즉접 환부에 침투되야서 병근원의뿌리를곳빼버림으로써 무슨약보다도속히낫는약입니다

두통치통

더위가심한 요새에는 몹시 두통과현기증 또는 번두머리나 치통을 알키쉬우나 이런때에 사로메지—루를 압흔곳에 조곰 발느시고 살살 문질느시면 곳낫습니다 흔히 지금쌔저에는 두통과다 혹은 내복약을 잡수시나 이것은 인이 백이기쉬울뿐더구나 위장을상하야 듯게됨으로 효과가 느즐뿐만아니라 위장에 고장을 닐으키기쉽우나 사로메지—루는 고편법이 업시 간편이 직접 환부에 작용하는약임으로 속히낫게됩니다

家庭應急常備藥으로 반듯이 어느가정에도 한개식 갓후어두시기 바람오니 갑작이 압풀을늣겨 참지못할병이 발생되시엿슬때 응급치료가되며 평지낙상 멍든곳 세안때 힘줄이 생가고 근육심부가 걸니고 쑤시고 압흘때 또는 벼록 모기 빈대에물닌때 혹은 예방에 사용하시면 우수한 효과를어둘수잇습니다

신경통 류—마지소 두통 치통 견비중 타복상에

陸軍承認藥

五十錢·一圓·二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합니다

サロメチール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續夏漫筆 近郊聖地六臣【二十】

湖岩

六臣墓는 墓主들의 漢陽의 名所古蹟으로도 保存할必要가 잇는것을 力說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엇거니와 漢陽人士는 아직 여기對하야 아무생각이 업는것갓다。

漢江近傍에 잇는 民族的聖地로 이六臣墓에 參謁하는이가 市民과學生중에 하로동안에 몃사람이나 잇는가。今年은 더구나 六臣의殉節한 丙子이다。지금부터 四百八十年前 丙子六月十二日에 是殉臣에서 明國使臣을 잔채하는날이다。

이날에 成三問 朴彭年 河緯地 李塏 柳誠源 兪應孚等 諸臣이 端宗의復位를 圖하다가 金礩의告變으로 말미암아 發覺되어 그同謀者와함께 慘刑을 當하고말앗다 이때는 李朝開業六十五年째되는 文運의隆盛이 極하든 光輝잇는 黃金時代인데 六臣事變가튼 流血慘劇이생기게된은 王室로는 永久히 씻을수 업는 歷史上汚點을찍엇스나 六臣으로는 光彩이 萬丈이오 壯烈이 千古를 울렷다。

그들이 몸을 屈하야 生命을 내여대고 어대까지 勇進하는 그正義感과 알어주는님을 爲하야 盡忠을 그여히 殺身하고야말은 그知遇感이 六臣에서처럼 잘表現된것은 업다。節義 忠烈 및 所事에 殉忠하는 六臣의 大節이야말로 길이 後人에게 感激의 源泉이 될만하다。朝鮮의 士道가 이六臣에 이르러 거의 最高潮에 達하엿다。論者 或은 世祖로서 明 成祖에게 比하고 六臣으로서 方孝孺、景淸等에게 比하는이 업는바 아니나 理想에 잇서서는 世祖께서 周公으로 自任하든模樣이 그人格的 光彩를 일층더 빗내엇슬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周圍事情이 世祖를 모라 成祖가 되게한곳에 六臣으로하여금 方景의慘劇을 스스로 甘飴가티 달게녀기게 되엿것이다。

刀鋸鼎鑊의 아페 抗節不屈하든 그때 六臣의 秋霜烈日的義魄은 顏氣勃勃한 世祖로 顏色이 업게하엿다。今世의亂臣이요 後世의 忠臣이란 歎辭를 發하게한것은 反對地位에 잇는 世祖로도 이들 六臣의 忠義壯烈한 그義理에는 기피 感服하지 안흘수 업는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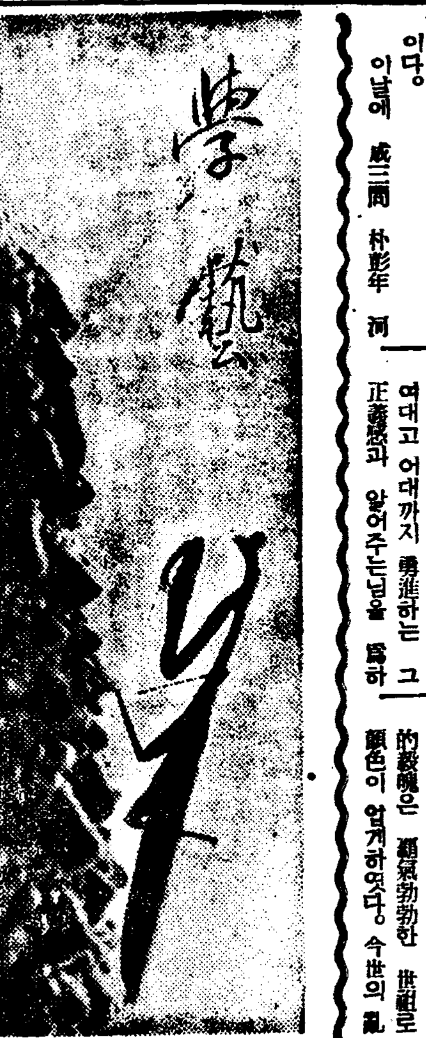
經國濟世의 大志雄圖를 품은 世祖께서 人才를 애껴 六臣의縲絏를 잡근後에도 그욱이그네를 달내스니 이때만일 조금만溫和한態度를 取햇슬지면 죽지도안코 富貴를安享햇슬것이다。그러나 그네는 正義의人이라 차라리 죽어서正義의 鬼가 될지언정 살어서 不義의人이 될수업다 그러므로 一言下에 世祖의 命하는것을 拒絶하고 말앗다。

아무리 生命을 鴻毛가티輕視하는 義士라도 自己한사람뿐이아니라 三族이 全滅을 當하게되는 판에 어찌 多少마음이 울죽이지 아니하랴。그러나 그네는 國家正義를 爲하야 自己와 밋그家族을 犧牲하기를 조금도 躊躇치 안햇다。이 어은 愛情이 녀기지안코 漢陽軍에도 家族至上主義인 漢陽서 처음보는 일이오 또뒤에도 볼수업는 일이다。그리하야 儒教國의 君臣關係이 確立되엇것이다。

만일 그當時에 六臣이 업섯드면 어찌되엇겟나 생각해보라 참말 글자대로 百鬼夜行하는 暗黑天地가 되고 말엇슬것이 아니냐。六臣이 흘린 義의피는 王室의汚點을 씻고도 오히려 남음이 잇서서 李朝史를 깨끗하게 淨化하엿고 이로부터다시 千百世後까지도 살아지지안는 비치되여 잇슬것이다。

正祖때 山堂李瀚亮의 六臣을 노래한 詩句에 갈우되 眞人六人死。眞人皆長生。生前凡被殘。死後千百世。

이詩의 最初兩句는 省略하엿지만 言簡意盡하야 一脉三歎할만하다。



文章論 現役評論家의 群像

……文章으로본그들의印象……

● 朴英熙

朝鮮文壇의 現役 評論家 諸氏의 文章에 關해서 批評文을 서달라는 學藝部의 請託을 맛고 나는 여러번이나 생각해보다가 하는수업이 이設問에 答하기로 하려는바이다。그러므로 評論家로서 이 論文에

登場하게 되는 人員數도 學藝部에서 選擇하고 指定하여준대로 하려는 바임을 미리 말하여둔다。

그런데 事實에 잇서서는 文章을 批評한다는것보다도 그文章을 읽을때에 어든 짤막한印象을 쓰려는것에 不過하다。文章을 文法的으로 解剖하려는것이 아니고、文章을 性格的으로 表示된바를 말하려는까닭이다。

勿論 文章이라는것은 筆者의 思想을、或은 意思를 表現하는것이매、그內容을 全然히 無視할수업는것인줄로 안다。常識的으로 例를 든다면、激情的인內容을 가진 文章이、硏究的內容을 가진 文章과 相異하며 妖艶한 情緖를 描寫한文章과 社會動態를 詳述한 文章이 各各相異한 바가 잇스니 이리고 보즉文章을말하기前에먼저 內容의整頓된 構想을 論하여야하며 그 結構를論하기前에 먼저 그思想의善惡을鑑定할 必要조차 업는바가아니나 이러한것은 文章의一般的

性質이다 特殊的性質이아니다。特殊的性質이란亦是文章의 個性인줄로안다。即文章의 性格이다。또한文章의人格이라할도 使用할줄로안다。文章의 性格과人格은 勿論共通된 原理下에서 形成되는것은 아니다。이것은 同一한 論題를 提供할지라도 相異한 筆者에 따러서 各各 相異한 個性을 發揮하는것이니 나는이것을 文章의 個性 或은性格이라고 생각하고 此論에 잇서서는 內容도 아니고 思想도아니고、다만 文章의 個性만을 論코가하는바이다。

그런데 文章에 나타나는 性格은 筆者의 技術的 或은 博學的 影響을 바더서、或은個個한個性과性格을未分하야 發揮하는것도 잇고 어느것은 그文章의 個性과 性格을 發見하기 어려운것이 잇스니、그것은 아직도 文章으로서 一家를 成하지 못한까닭이다。

그러므로 文章의個性만을以下 順次로 論하여보기로하고 쓸데업는序言은 省略하기로한다。

原來 朝鮮文學에서는 그語彙와 아울러 文法의 整理가 지금 硏究中에 잇고 現役 朝鮮文士들이 이것을 完成하기에 努力하는中이니、勿論 未來의 光彩나는

文章學도 形成될줄로 아는바이나、現在까지의 未備한 文章의 智識으로서、各自의 特異한 文章의 個性이 서기前에、外來의 文章에 보다 더 模倣되여서 文章의 特殊性의 發達이 遲延된때도 또한 잇섯다。

그러나 現在에 잇서서 보면 各自의 文章은 明確히 그個性과 性格이 發揮되며、또한 特殊的으로 發展하게 보이는것은 대단히 조흔現象인줄로안다。文士들은 各自의 面을 所有하고잇듯이 各自의 文章의 個性을 所有하여야 할것이다。

林和 氏

그는 詩人이다。詩人이라는것이 評論家라는것보다 칭찬 그의 名譽를 위해서 조흔줄로안다。그의 評論이란 大部分 反駁이엿기 때문에 그의 文章은 平和와 安息과 悠久한 情緖를 떠나서 어느때나 急製의 武器로서 가지와 입새의 茂盛한 修辭의 審美的準備가 업시 나타낫다。그것은 堅固完備된 建物이 아니고 戰地의 野營 아페서 徹夜하는 疲勞한 兵士의 獨白과가튼 氣分을 준다。그대신 沈重한 文章이라기 보다는 輕快한 文章이며、文章의含蓄的 深奧한 境地대신에、率直明敏하야 모든것이 表面化하고 잇다。論敵을 치매、白鐵氏와 가티 先輩의 諸論의 聖林을 陳列하지안코、或은 論敵을 說服시키려는 巨大한 博識가 업는대신에、그의 獨特한 技術로서 論敵의 文章을

粉碎하야 無條件하고、그의 眼界에서 업새버리려는듯이、그의文章은 銳利하고 엄도 업다。學的態度의 寬大性이 업다。文章을 보다 더 銳利하게 하기 위해서 無數한 造語와、어지러운『떼쉬』符號의 排列이、機智잇는 時號과 한가지로 合하여서 다름질처 거침업시 나려는가나、難解의 文章、生硬한 語法이、福車式文章法의 餘波로 생가된다。餘韻업는 文章이니、씹는맛이 업시 단갓 살림모양으로、를고 씨는듯이 淸明하다。

그러므로 그의文章은 正直은 하나 單調롭고、淸明은하나 理念이 不足하야、그의 文章 스스로가 單調와 輕快에、攻擊의 追車를 加하야 그 焦燥한품이 落葉의 火勢와도 髣髴하다。

만일 그의 詩文에서 보이는 바와가튼 哀傷的 文章이、그의 論文에도 잇다면 論敵의 敵意를 눈물속에서 解消하여버리엿슬는지도 모르겟스나、如何間 그의 論文의 文章은 硬固難澁하야、一見 詩人의 筆致라고는 생각되지 안는다。日前에 그를 가르처 詩와 論의

相違되믐을 論하야 一人二役을 한다고하엿드니、그의 親友인 金南天氏가 그를 擁護하야 詩聖『꾀테』에 比한것을보고、나는 苦笑를禁치 못하엿든일이 잇스나、어찌했든 그가 詩에는 唯心的이고 論에는 唯物的인 技術이 잇는것은 決코 나쁜일이 아니며 그것은 그의 技倆에 맛길것이니 나에게는 關係가 업다。그의 文章이 그러는동안에 圓滑한 一路를 것지못한다는것과 그리하야 그의文章에 그의 人格이 良好한 結果로서 나라나지 못하는것을 그의 文章의 性格으로서 말할뿐이다。때욱히 論敵을 學問에서 是非하려지 안코 꼿꼿人的關係에서 眼意滿滿한 新語의 時就이 特殊한 任務를 하는 그의 文章은 때때로 輕快한 反面에 不快를 갓게한다。

그런데 그의 輕快한 文章이 때때로 難解로 化하는것은 그의 文章이 極度로 壓縮되고 短縮되까닭이다 어느때든 그의意圖를 說明하는 長恒한路程을 밟기 前에 自己의 意圖를 力說하게 되는까닭에 이文章에는 豊富한 動詞와 形容詞와 副詞等의 交代가 적고 名詞 動詞그리고 終止詞의 短文章이 悠長한 接續詞를 無視하고 저의끼리 强制的 連結을 피하는데서 그러한 難解가 생기는듯하다 때로 그의 新作造語術에는 또한 驚歎할때도 잇는것을 끄트로 말하여둔다。

斜景

夏期學生通信

黃昏禮讚(下)

…元山松濤園에서…

世專 李昌植

멀니 元山港과 葛麻半島의솔숩우에서 깜박이는 燈臺불은 그무슨 哀傷의戀歌를 불러주는듯도하고 神秘스러운 感情의律動을속삭이는듯도하다

燈臺지히는외딸이 가슴기피파고드는 안타가운 處女의사랑을 詩로엮거가지고 푸른하늘과 어둠속에 하소연하는것인지도 모르리라

힌돗단배한척이 어듸서 나타낫는지 검푸른물결을 헤치며悠然히 잇그러저가고 갈매기우름소래 두세번 구슬푸게 들여왓다

모도가 詩的이요 感傷的이다 그리고 浪漫的이다 나는 한참동안이나 꿈의나라를 헤메듯이 내自身을잇고 이러한 自然의風景에 陶醉되여잇섯다

가슴속에는 아직못핍 그러나 짤스럽고도 아름다운情緖가 구비처흐르는것갓고 枯渴된心魂은 蘇生의生命水나 마신듯이 神秘스러운 마음의閃光에 빗나고또 潤澤해지는듯도하다

그리고同時에 마음한편구석에는 텅부인것가튼 空虛感도 이러나고 무엇이라도 부여잡고십도록쓸쓸하고 孤寂한듯김도 이러난다

거치른벌판을 외로히 거니는나그네의 心情과도가튼 서글픈情緖가 잇는가하면 天涯의孤兒와도가튼 悲哀도잇고 하잘것업고 嗣하기짝이업서보이는 自己自身에게對한 幻滅도잇는것갓다 어린時節을 追憶도해보고십고 이밤이 지새도록 바다ㅅ가를헤매며 그무엇이던지 思索해보고십픈衝動도 늣긴다 금시에라도 그무슨詩想이 튀여나올것갓기도하고 偉大한 小說의構想도 손쉽게 되여질것갓다 그러나 손을 가슴우에 언고 가만히 어루만저보면 그것이 무엇인지確實히 正體를 捕捉하기는 困難하다

오! 얼마나 만흔사람이 이 바다ㅅ가를거니르며 지터가는 黃昏의풍경에서 이러한 錯雜한 感情을 늣기고 호ㅎ엿슬것인가?

萬一 저하다우에 이러하여서 사람마다 느끼던感情을 고대로 송두리채 색일수가 잇다면、그리고 지나가던나그네가 暫間 발길을멈추고 느끼던 그感情까지라도 색여질수가잇다면……하고 나는 生覺해보앗다 그리고 그러케할수만잇다면 그것은 눈물우슴、悲哀、喜悅、孤寂、애달픈 人生의懷疑와思索、사랑의甘夢 失戀의傷痕……等의 굵고 가늘고 길고 짧은 線과點이 亂麻와가티 交叉되여잇는 한幅의 繪畵와도 가틀것이라고 生覺햇다

어데선가 굵직한 男子의러더소리와 간얄핀 女子의소푸라노소리가 애끗한 멜로듸-를 싯고 들려왓다 祝福바든 두젊은이에게는 오직 그윽한幸福感과 人生의 香氣로운꿈만이 잇는듯하다。

그들은 이밤을 새워가며 蜜月의단꿈을 꾸고잇슬 新婚의夫婦인지도 모르리라

松林속에서 새여나오는 바랄소래는 哀愁에저즌 한숨과도가티 서글푸게 들려오고 바다우를 스치며오는 시언한바람은옷깃을헤치고 가슴속기피 숨여든다 그리고 波濤는 如前히 바다깃을 때리고……

나는 감엇던눈을 사르르뜨고 검푸른물결을 바라보앗다

바다는 죽엄과가튼 威嚴과嚴肅을 가추고 哲學者의 思索과도가티 무거운沈默에 잠겨잇다 그밋바닥에는 무슨 기픈智慧와 人生을透徹하고 社會를達觀하는 聰明이 숨어잇는듯도하고 萬難을排除하고 所信하는대로 邁進할수잇는 勇敢力과 果斷力이 潛在해잇는듯하다

사람이야 그아페서 어떠한感情을 느끼던지間에 내알배아니라는듯이 泰然自若히 안저서 宇宙를 굽어보고 歷史의흐름을 凝視하는듯한바다!

無表情한듯하면서도 기픈眞理를 깨닷고 그에따라서 生活해가는듯한 묵직한態度가 些少한 感情에 얼매이지안는 偉大한抱擁力을 가지고잇는바다! 그것은 사람으로하여금 다시한번터 自己를 反省하고 人間을 思索케하는 追力과 壓力을 가지고 잇다。

나는 가만히 가슴우에 손을 언고 내自身을 다시한번 더 바라본다 그리고 내가 거러온 人生의길도 回顧해본다 그 世上은 어지럽고 거칠다 그리고 나날이 그度가甚하야간다 그속을 헤여처가는人生에게는確乎한 人生觀과 社會觀과 勇敢한實踐이 무엇보다도 切實히要求되면서잇다 그러면 내게는그만한 準備와用意가 되여 잇는가?不幸히도 나는이것을 肯定하지못한다 그것은 非但나뿐만아니리라 現實속에는 生의眞理를 일코 灰色的雰圍氣에서 標榜업는 機械的生活을 하고잇는 蒼白한인테리가 얼마나 만흔것인가? 그들은 오ㅅ갓矛盾을 內包하고 苦悶의아픈매를 맛보면서도 그에서 한발거름 더 나아가지는못한다 좀더 굿세게 살수는업슬가? 夢想의 象牙塔을 버리고 明瞭한 삶을 가질수는 업슬가? 나는 몃번이고 이러케마음속으로 웨처보앗다

때마침 元山港으로부터 들려오는 汽笛소리는 凄凉하게 밤空氣를흔들어노코 지나간다 도엄마나만흔 港口의哀話와 눈물의 離別을 싯고 저배는 떠나가는고……

나는 혼자 이러케 중얼거리며 그자리에서 일어낫다 그리고 시내ㅅ가堤防우로 발길을옴겨노앗다

江건너마을에서 明滅하는 등불들은 그무슨 아름다운꿈과神秘를 象徵하는듯이 깜박이고 그속에서 흘러나오는 개짓는소래도한번 나그네마음을 서글푸게 흔들어주고 사라젓다

一九三六年八月 於松濤園

繪畫의豫言

『막스·슈-메링』이 黑人拳鬪選手『조-루이스』를 보기조케 노크아웃시킨 二個月前에『로스안젤스』의 繪畵彫刻展覽會에 나타난『허-리웃드』의畫家『프레차-·마-틴』氏의 그림은『녹아웃』이라는 題目이엿든바 實際로試合의結果는 이그림과 꼭가티 되엿슴으로 米國人들사이에는『繪畫의豫言』이라고해서 여러가지로 話題를 만들고잇다。(寫眞은 問題의 캄퍼스」와 作者『마-틴』氏)

나의關心事

民族과言語

金起林

얼마전부터 내가 合에 걸려서 아직까지도 잘나려가지안는것은『民族과言語』의 問題다。또 여러 帝國의그 식민지에 대한 言語政策이 各各 어떠케 다르고가는가 한點도 알고십다。『오토·바우엘』인가 民族을가르처 言語共同態라고하엿다 民族의本質을 밝히는데 政治的經濟的要點을 쑥 빼노흔것은 매우觀念的이나 如何間에 民族과 그言語는 實로 緊密以上의 關係가잇는것갓다。그것은 지금 현편으로는 거의 그存滅을 함께할것갓다。

이點에서는 問題는混亂을이르키기쉽다。即原理와 政策(理想과現實)의混同이 그것이다 나는 歷史의마지막날까지도 어느民族이 그言語를 끌고가야만된다고까지는 말하지안는다。그러固執하고어리석은 생각이 어대잇슬라고。

다만 現實의 問題로서는 일의 性質이 매우 다르다 即 現段階에서는 한民族이 그民族의말을 내던지는것은 歷史의 進展에 대한奉仕가 아니고 도리혀 그背叛이라는것을 깨닷는것은 실로중요한일이다。

民族語의消滅 民族文化의 消滅 그래서 單一文化의實現은 亦是 民族들사히의物的境界가 업서지고도 칠신뒤에 올일이 아닐가?암만해도 그게올흔생각이다。

讀者社交室

▲本人은全鮮的으로 文學의同志를求하야 通信으로나마 相互文學에對한 討議를하고저하오니 詩文學의 最高殿堂을 꿈꾸며硏究하시는 靑少年女性諸氏들은勿失此機하시고 下記該當欄에適用字記入하야 左記住所로 通知하시면 (八月十五日限)到着順대로하여『文學同志 名簿錄』을 印刷作成하여일일히 配付하여들이겟나이다

一、氏名 一、年齡 一、出身學校名 一、現住所 一、現在一私塾作家世界文壇 日本文壇 朝鮮文壇中各一人式以上

黃海道 苦離市 成日實

▲谷山에가잇는 遠鴻 金炳德友여! 客窓에서 事業이如意하며 近日의 자미가 어떠하오?貴君은 그리도 생각이업는가、나는 君의消息을 알고저 오날까지 궁금하엿네、前日——樂永에갓든 君의同生 炳祚君을맛나 谷山에 가잇다는말을 들엇네。友의住所를 未知하와 本欄을利用하오니 동무여! 速히 한장의 葉書를 던저주기바라며… 遂安에서 金鼎應

▲金振九氏近著『國際可閉』을購讀코저하오니 發行所나 販賣店을下敎하여주시옵소서 新義州 金生

▲忠北大同에 測量法을가르치는 講習所가잇다는데 仔細한住所를 下敎하시여주시요 載寧 鍾生

▲柳龍順아 네가日本內地로건너간지 十數星霜이로되 一切消息을알리지아니하니 무슨연고이뇨 父母兄弟는 네의生死를몰라 늘걱정으로지내신다 京城에잇는 從兄에게로 消息을傳하여주기를 바라노라 日本內地에게시는분께서 右人을或아시는분이계시면 本社交欄을通하여 알려주시면至極히 感謝의禮를 表하겟나이다 또는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시면 右人의出生地는京畿道江華郡仙源面神井里인데 年齡은二十八、九歲 日本內地로건너가서 或은變名하엿는지도알수업습니다

京城府西大門町 一丁目一九九 柳在源(變名龍雲)

▲여러분中에 軍手織造機中古品이잇스면 廉價로讓渡하여주십시요 市內孝悌町二六九 金秋洪

▲八月廿二日 朝鮮日報第四面에記載된 求婚하시는분께 住所를社交室을通하여 알녀드리오니直接으로通信하여주십을바랍니다

咸南元山府京町七五 崔成新

▲生이電氣治療法을 修得하고저하옵는바 此療法이 各種病疾에 對하야 確實히 效果잇는지요 그리고信用잇는敎授所를 下敎하야주시기를바랍니다 (咸南 一讀者)

▲蓮池町曹淳兄께—外叔奉文氏를 찻는다고하시든이 그間차즈섯는지는 모르나 그와똑가튼이름을가진 池奉文氏가 今年봄에 間島로부터 도라와서 지금苑西町에잇는 朝鮮文學을 編輯하시고잇는데 그가 아닌는지——萬若그러면맛맛상하시대로 專謝를주시기 바랍니다 桂洞町 金綠

▲小生은今春普通學校를卒業하옵고上級學校入學試驗에應하엿스나不幸不合格이되엿나이다市內에中等校入學準備시키는學園이잇자오거든 速速히 下命하시압소서 (一讀者)

▲卓球會의長과 囿과 高가幾尺式이지 詳細히下敎하여주시요 慶山 尹敬富

絢爛한天分의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一、蓮花(女)「슈-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베르트」

【피아노】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五十錢에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담·기침·천식이 곳근치되는

靈山과 靈藥

거칠약중 계정靈藥한 효과를 자랑하고 칭찬을밧고잇는 靈藥龍角散을 그원료가 어느약보다도 조흔것을 精選되여잇슬뿐더러 다진분제만이 特지고잇는 麝香홀몬에 가며되여잇는까닭에 아모리 고질만성 남증에 어됨 담、겨침병일지라도 꼿처버리며 예방을 방저하고몸 전신을 원기엿채회복시혀줍니다 더운요새에 특혜초선에유행되는 벗흔기침 백일해에 특효가잇스니 우려죠선사람의체질에꼭맛는만큼 곳낫습니다

龍角散(룡각산)

龍角散의適應容態書
咳痰/담으로항상콜록콜록하는분
喘息/천식으로그르렁거리고숨찬분
頭咳/기침이잣고밤잠못이루는분
流感/류행감기로생겨는담기침나는분
肺病/폐병으로늘바튼기침하는분
血痰/담에서냄새나고피석거나는분
聲嘎/목소래가쉬고또는인후염증분
小兒/백일해와홍역거침하는아해

아모리중한症이라도 二三週日계속하야 복용하시면꼿근치됩니다

定價 一日半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十五日分 三圓

東京市神田區豊島町 本舖 株式會社 藤井得三郎商店 振替東京九一番 電話淺草(86)〇九〇六

▽朝鮮藥房에서판매합니다△

連載野談

布袋記 (二)

申鼎言 作　金熊超 畵

신의잇는편에 (二十)

제후소저가 백운국선과 사랑의 신의를 직히기 위하야 자긔의 두눈까지 빼려고 쪽집개와 가위는 물아 경대압헤노코 인두와 화저까락은 화로에너허 달구엇다.

그리고 경대를 갓가히 다어노코 두눈을 들여다 보며 가위를 집어 눈을 견우어 보기도 하고 쪽집개를 들어 또한눈을 견우어 보기도하얏다.

그리다가 가위와 쪽집개를한편으로 노코 벌엇케 다른 인두와 화저까락을 들어 눈압헤 하야 경계 뜨거운 긔운이 얼굴에 화홍기며 두눈이 제절로 때감기다.

「아아 눈이란것은 이러틋 령겸스러운것이어눌 백운국선의 두눈은 어이 그대지 야속하게도 상햇슬가。」

하며 제후소저는 백운국선의두눈을 멀게한것이 꼭 모진 귀신의 작희로 생각하며 그 귀신을 원망하야 얼굴이 파랏케질리엿다。

그리다가 다시 가위, 인두, 쪽집개, 화저까락을 차례로 돌어 두눈을 견우다가 문득 크게 깨다름이잇는듯。그 가위, 인두들을 자리에 노흐며 그때려든 두눈을 차도니 반짝거리는 광채가 새ㅅ별가릿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자긔의두눈을 빼고 백운국선을 따르다하면 사랑에 대한 신의는 직히게되나 부모에 대한 자식의도리는 상하게되는것을 생각한까닭이다。

신의?。

효도?。

그 두가지가 모두 소중한것이어니。그중에서 어느하나만 못는다는것도 못할일이오 그두가지를 다가리 완전히한다는것도 어려운일이라 이에 제후소저는진실로 가슴이 답답한것을 억제할수가 바이업는 괴로운가운데서 신음하게되엿다。

그리하야 어떠케하면 신의와 효도를 아울러 온전히하게할가 그생각을 거듭하얏다。

「아아 내가 두눈을 빼기가 앗가운것도아니오 무서운것도아니야 그러나 내두눈을 빼는때는 백운국선에 대한 신의는 살리는것이러니와 부모에 대한 효도는 죽어버리는것。그럼으로 신의와 효도를 다직히기 위하야는 내두눈을 그대로 두워야할것。내어찌 일직 이런분명한 리를 깨닷지 못햇든고。」

하며 제후소저는 신의와 효도를 다삿치아니할 큰계교를 필경 깨닷엇다。그래서 제후소저는 가슴에 그큰계교를 품고 태연자약히 지내니 거누구나 그속을 아는사람이잇슬리 만무하얏다。

제후소저의 부친은 리교평과 혼사를 작정한뒤 한편으로는 그래도 백운국선의 부친에 대하야 게면쩍은 생각이업지아니하고 도한편으로는 제후소저의 생각이 어떠가를 알기 위하야 그긔색을 은근히 살피기를 여러번하얏다。

그러나 제후소저의 긔색이 아무리처도 아니할뿐만아니라 도리혀 무거운 물건은 가벼운것으로 밧구고 가벼운것중에도 금과 은과 옥과 구실등 갓친보물을 일일히 챙기며 그밧게도 될수잇는대로는 한가지 두가지식이라도 더모와서 긔구를 갓추나는 행장을 차리는것이 보이엿다。

「허허 딸자식을 큰도적 딸자식이 셋이잇스면 여섯간 고간을 열게된다는 말이 과연 헛말이 아니야 제가 리교평이란 남자를 언제 본사람이라구 그사람을 차지가는 혜구를 저러지 욕심스러웁게 챙기거든。」

하며 제후소저의 부친은 제후소저가 은연히 감은긔색으로써 시집갈 준비를 하는양이 크게과특하야 제후소저가 청하는것。또는 욕심내는 보물은 엑기는것이어서 다주기로하얏다。

그런 저렁 지내는중 벌서무진으로 떠날날자가 박두하엿다。

제후소저의 부친은 가진혜구를 가추가추 큰짐과 소에실릴것과 남네 하인들에도 의회가잘생긴 하인을 골라 딸으게할 준비를 다한뒤에 큰 잔치를 배풀고 여러친구와 여러친척을 청하야 대접하게되엿다。

그런데 그여러 친구중에 오직 백운국선의 부친만 빼것스매 제후소저의 부친도 설새한 눈깃을 금치못하얏다。

이에 제후소저의 시집가는긔구가 굉장하다는 소문이 신라 서울안에 크게 떨치여 여러사람들은 그 굉장한 긔구를 구경하자 모혀드는 사람이 적지 아니하얏다。

演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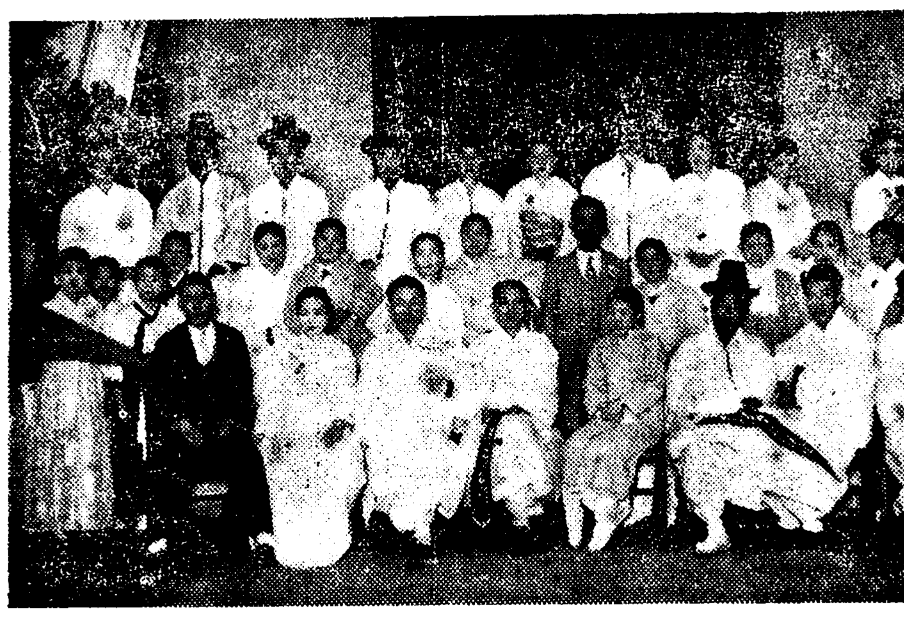
本社主催、聲研贊助 水害救濟 慈善舊樂大會

音樂的意義도巨大

우리의 舊樂은 將次로 消滅되야 버릴 運命에 노히어 잇다。우리네 父祖가 질기어부르고 듯든 그소리를 이 世代의 우리들은 저바리려고한다。이 엇지 有心한 사람으로하야금 萬斛의 눈물을 禁할 바이랴? 舊樂界의 元老諸氏가 朝鮮聲樂研究會를 組織하야 가지고 年來로 不斷한活動과 苦心의 努力을 하야 오는것도 오즉 거긔에무거운 意義가 잇고 本社에서 조그만 힘이나마 그聲研을爲하야 애끼지 안는것도 오즉 거긔에 숨은 뜻이 잇는것이다。今番 水害에 잇서本社에서 여러가지 救濟方策을 생각할때 어듸서보담도 聲研에서 率先의 贊助를 提議하야 왓다。이 비록 偶然한일이나 同會의 根本趣旨를 더욱 鮮明히 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지 안흘수 업는것이다。巷間에서는 흔히 名唱大會라는 것을 開催하야 왓스나그것은 大槪가 羊頭狗肉에 지나지 못하얏섯다。

舊樂界의 元老들을 全部網羅하기도 힘들거니와 設使 그분들이 마지못하야 出演하더라도 恒常 뜻갓지 못한일이 만하서 自己네의 誠意를다하기 어려웟든것이다。그러나今番만은 첫재로 兄弟姉妹의 患難을 救하려는 눈물거운 出演이요 둘재로 이機會를 빌어서 舊樂의 再生까지도 도모하려는 意義기픈事業인만큼 平生의 天分을 잇는대로다發揮할것은 勿論이다。事實로名唱이 名唱되는 그所以然을알려고 할진댄 前에도 업고뒤에도 업고오즉 今番이 唯一한 機會라고 하더라도 過言이아닐것이다。더구나 聲研에는 方今 有數한 後進들이만히 숨어 잇는바 그들까지도 總動員하기로 되얏다。今番舊樂大會야말로 舊樂界 未曾有의 豪華版이 될을 밋지안는다。

물론 이런意義의회는 반듯이음악을 들리기 위하야 주최하는것도 아니요 또 음악만을 들으러 오시는 것도 아니겟지만은 실상 今番의 舊樂大會는그러한 慈善意味를 떠고라도絶大한 意義가 잇는 것이다。우리는 單純한 音樂만으로도 今番舊樂大會의 主催를 당하야 마지안는다。



◀……朝鮮聲樂研究會員一同……▶

今番에出演할 樂士와曲目

宛然舊樂의 언파레드

李東伯
어화少年들아(短歌)
春香母供祝(春香傳中)
春香自嘆歌(同 上)

宋萬甲
天下太平(短歌)
獄中歌(春香傳中)
쑥대머리

宋萬龍
大丈夫說(短歌)
三顧草廬(三國誌中)
泛彼中流(沈淸傳中)

丁貞烈
不須悲(短歌)
春香이화절(?)(春香傳中)
沈奉事皇城가는데(沈淸傳中)

吳太石
어화靑春(短歌)
伽倻琴並唱

沈淸빗떠러가는데(沈淸傳中)

裵太弘
雲淡風景(短歌)
諸子龍鳳자불는데(三國誌中)
제비진러가는데(興甫傳中)

丁南希
伽倻琴並唱

曺房任(?)도조시요(春香傳中)
玉樓紗窓(短歌)

朴綠珠
雲淡風景(短歌)
二妃나오는데(沈淸傳中)
兵營에매맛는데(興甫傳中)

申錦紅
萬古江山(短歌)
船人따라가는데(沈淸傳中)
배타고임당수가는데(同上)

金素姬
名妓名唱(短歌)
못잇겟네(春香傳中)
御使春香집에(同上)

林小香
楚漢歌(短歌)
龍王歡(?)長(水宮歌)
흥보조겨나는데(興甫傳中)

朴玉秦
片時春(短歌)
리별가(春香傳中)
저승前(흥보傳中)

李桂仙
江上歌(短歌)
박석퇴올리서(春香傳中)
十杖歌(春香傳中)

趙素玉
玉樓紗窓(短歌)
흥보조겨나는데(興甫傳中)
제비가(興甫傳中)

曹弄玉
竹杖芒鞋(短歌)
王日然하다(水宮歌)

張香蘭
申錦紅
金素姬
(三人合唱)
遊山歌 제비가
노래가락 방아타령
開城난봉가 박연폭포
수심가 (京畿唱)

朴綠珠
吳太石
裵太弘

金世俊
申錦紅
曹弄玉
趙素玉
朴玉秦
(八人合唱)
春食、花草四節
진六字백이
자진六字백이
春打令
개고리타령
農夫歌
城主푸리

倫敦塔의試寫會

가지가저의 悲慘한 이야기를 간직한 倫敦塔속에서 요지옴 映畫試寫會가 열렷다 試寫된映畫는『九日의女王』으로 十六世紀에 九日間王位에잇섯다는 제ー ㄴ·그레이夫人을 레ー마로한것인데 試寫는 그女子의목을 베엿다는綠塔附近에서 하게되엿다 由緒가기픈 倫敦塔이映畫의 試寫場으로 變함에는 그塔을세운우리스·시ー사도 地下에서 感慨가 無量할듯

音樂家의稅額係爭

바이오린의、世界的名手『프리쯔·크라이스러ー』氏는 最近『와싱톤』市稅務署에 對하야所得稅額의 査定에不服을달고 係爭中에잇다『크라이스러』氏 一九三三年度所得稅는 五萬三千六百五十五弗이 賦課되엿스나 一九三三年에同年度分 으로서 벌서 八千七百八十弗을 納付하얏고 그外에도 여러가지도출데가 만흠으로査定額으로 引下해달라는것이다 이에 對하야 稅務署에서는『크라이스러氏』는 一九三三年契約으로 十一萬四千 百三十弗을所得해잇고 거긔에 印稅와 株券配當權을 合하면 査定額으로도로혀 低廉한편이라』하고 兩者의意見은 對立되여잇다한다

二十七日 (木曜)

◇午後六時三〇分 하ー모니카合奏 一、合奏 [illegible] 1 조선민요 2 개골이 3 오빠생각 4 조라배꼿방석 5 저녁놀 二、五重奏 [illegible] 三、合奏 [illegible] 四、五重奏 바르세로나…에반스作曲 五、合奏 [illegible] 六、五重奏 [illegible] 曲…두보미스키作曲 알파·하ー모니카·밴드 指揮 崔一出
◇同七時 [illegible]講座『地球는식어가는가』 [illegible]
◇同八時 講演 "朝鮮樂에對하야" ー李王職雅樂部演奏所로부터ー 李王職雅樂師長 咸和鎭
◇同八時三〇分 雅樂 一、壽日(?) 和之曲(管樂) 二、堯天舜日之曲(細樂) 三、壽延長之曲(合樂) ー李王職雅樂部演奏所로부터中繼ー 李王職雅樂部員 指揮 樂師長 咸和鎭
◇同九時 獨唱 一、조스랑의자장가…고다ー르作曲 二、때봄江…이봐노비치作曲 三、小夜曲…드리고作曲 四、歌劇"椿姬"中에서 1、"아ー그대엿던가" 2、"꼿체서꼿츠로"…베르디ー作曲 朴景嬉 피아노伴奏 高鳳京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水宮歌 金綠珠 鼓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illegible]講座
◇同一〇時三〇分 [illegible]講座
◇零時五分[illegible]
◇午後六時二五分(?)[illegible]講座
◇同七時三〇 [illegible]
◇同八時(東)피아노獨奏
◇同八時二〇(東)歌謠
◇同八時五〇(東)浪花節

二十八日 (金曜)

◇午後〇時五分 (東)하ー모니카合奏
◇同六時三十分 童話 "사이조흔동무" 金福鎭
◇同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 "軍水이야기"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一) 金[illegible]仁
◇同八時三十分 라듸오·드라마 "生活圖" 二景 崔南善(?) 東京學生藝術座
◇同九時十分 報念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興打令 卞洪(?)紅 曺弄玉
◇同九時三〇分 名唱大會實況(府民館로부터中繼)(?) 一、管絃樂……[illegible]·라무ー[illegible] "交響曲""포지세"……[illegible] 二、獨唱……크라이버트 [illegible] 우스作曲 解說、朝鮮音樂研究會 李[illegible]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illegible]講座 하바드·핫드만
◇同一〇時三〇分(東)[illegible]講座
◇午後〇時〇五分(東)하모니카 合奏 全日本하모니카 聯盟會 弘田龍太郞
◇同六時〇分(大)童話劇 同演奏
◇同六時二五分(東)[illegible]講座 고도모써클 增田[illegible]
◇同六時三〇分(東)講演 [illegible]
◇同八時〇〇分(東)[illegible]曲 [illegible] 笑平
◇同八時四〇(大)尺八獨奏 梅若 六郎外
◇同八時五〇(東)物語 小池玲 御橋公

二十九日 (土曜)

◇午後零時五分(東)輕音樂
◇同二時 野球試合實況ー龍山球場으로부터ー『[illegible]』
◇同六時三〇分 唱歌劇『잠안드는각씨』全一景 ー大成均作ー ー配役ー 文姬……韓貞淑 景姬…(그의동생)…金順伊 이웃아저씨……徐靜波 醫師……崔淳根 其他多數
◇同七時 [illegible] 指揮 太成均 버들피리會
◇同八時 [illegible] 高永燦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歌謠 一、[illegible] 二、[illegible] 三、[illegible] 四、[illegible] [illegible]
◇同九時 古調 [illegible] 明桂完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三〇分 十杖歌 外 一、十杖歌 二、赤壁歌 三、[illegible] 四、회오리 [illegible] 全光來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illegible]講座
◇同一〇時三〇分 [illegible]講座 國富信一
◇午後零時五分(東)輕音樂
◇同六時(東)노래공부 [illegible]
◇同六時二〇分(無)講座 鈴木[illegible]
◇同七時三〇分(大)어린이와가정 의저녁 一、唱歌 大阪放送合唱團 二、이야기 村瀨幸子 三、바이올린 獨奏 [illegible] 四、獨唱 木村美佐子 五、라듸오 드라마講座 六、管絃樂 大阪오케스트라
◇同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生活圖』二景 配役 朴(會社員)…金一英 그의妻…朴桂順 李(會社員)…金東鎭 그의妻… 金慶愛 同窓生…朴東根 ー文藝部編ー 東京學生藝術座 演出 朱永涉 音樂 金永華 效果 李鍾一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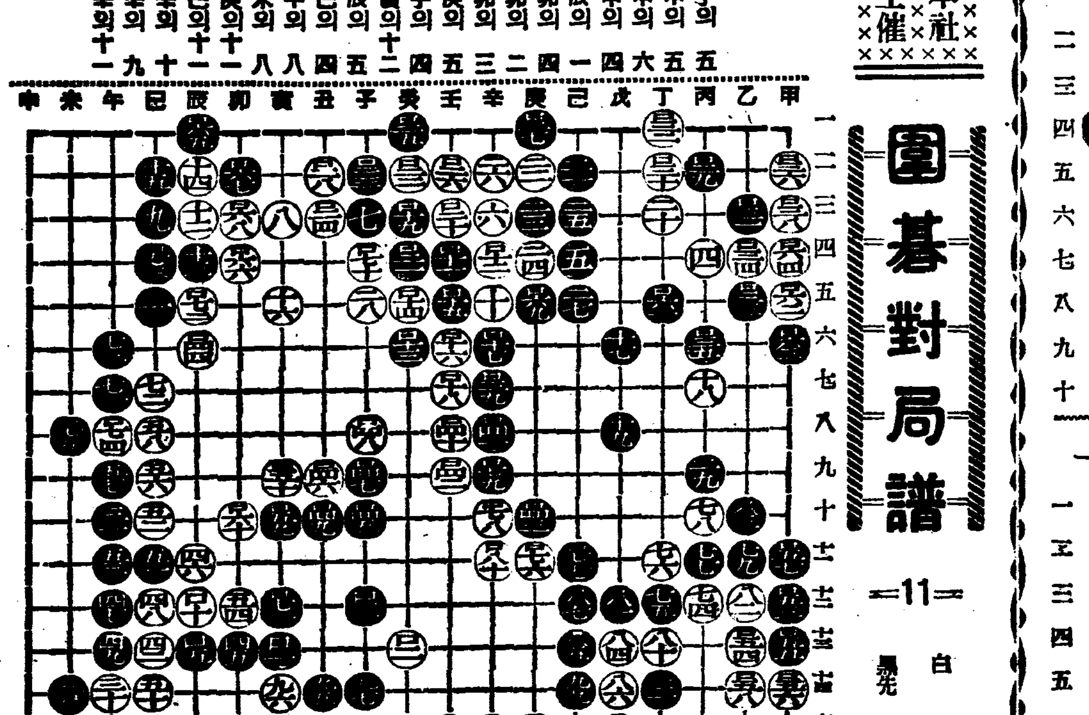
漢 先手 馬一減 李在鳳　楚 朴泰翰

丁四包ー丁十
戊四卒ー丁三
丁八兵ー丙八將
乙三包ー丁五
乙十車ー乙六打卒

丙三包ー丙四
己七兵ー己四
壬四包ー壬五
乙六車ー乙七
壬五包ー戊五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1—

白 [illegible]德文
黑先 丁奎泰



●丁의五
○甲의五
●甲의六
○辰의四
●卯의一
○卯의二
●卯의三
○卯의五
●庚의四
○子의四
●寅의十二
○辰의五
●巳의四
○午의八
●未의八
○庚의十一
●己의十一
○辛의十
●辛의九
○辛의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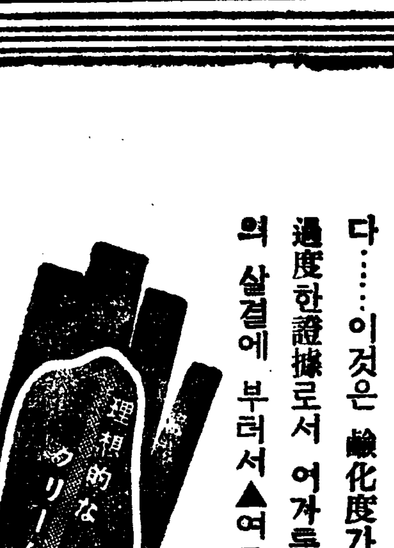
▲對局者談 末端効果는 黑丁의五가 第一相當하다 白이 丁의六으로 [illegible]이면 黑의 損이 不少함을 推算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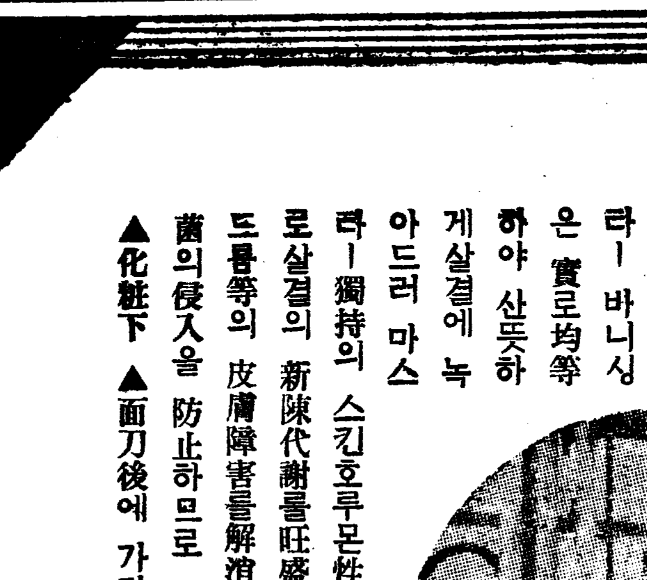
曆

八月廿八日(金)
陰丙申七月大(十二日)
壬午·木·牛·開
●[illegible]에宜함
●處暑二十三日(陰初七日)
●白露九月八日(陰廿三日)

크림의掌判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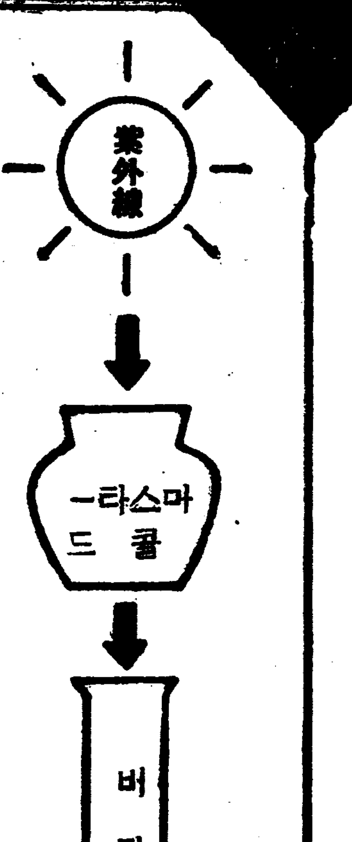
먼저 크림을손바닥으로 문질러보서요 놀래실것입니다 肝要한크림分이 손바닥一部分에 히게남어서 퍼저지안습니다……이것은 鹼化度가 不充分하던가 過度한證據로서 어거든크림은 一部分의 살결에 부러서▲여드름▲버짐▲[illegible]





誤엿는 部分的 벗겨름의 原因이됩니다 精撰된 高貴 原料와 最新의 設備로 비길데업서 鹼化狀態로만든 마스타ー바니싱은 實로均等하야 산뜻하게살결에 녹아드러 마스타ー獨持의 스킨호루몬性劑의 作用으로살결의 新陳代謝를旺盛히하고 ▲여드름等의 皮膚障害를解消하고 ▲有毒菌의侵入을 防止하므로 ▲化粧下 ▲面刀後에 가장좃습니다

マスターバニシングクリーム
마스타ー바니싱크림



살결의기름때、白粉의等을깨끗이除去함에最適한精製度에成功한마스타ー의콜드는日光을바드면곳美肌効果滿點비타민D로變化하는特殊成分과皮膚細部에美의營養과活力을補給하고老廢物을排泄하는作用이顯한獨逸特許의스킨호루몬性劑를配合하엿습니다

マスタードルーコクリーム
마스타ー콜드크림

請負制의弊害續出
勞賃支拂조차遲延
凶作民救濟工事는名色不過
咸南道에서嚴重警告

【咸興】령성개발가의 궁민구제인 하야 긔아의참상을이루고 잇는 함남산지대 오개군의 십오만명긔재민구제를 목표로시행하고 잇는도로개량공사(改良)가 청부제(請負制)로 시행하는 관계로서 청부업자들기리여러가지점에서 폐해하고잇슨는 리재민들이 가지가지의 중간착취를 당하야 비난이 국히놉다한다 이미간단히 보도한바잇거니와 이런의폐단은 비단삼수군(三水郡)에만잇는것이아니라 공사시행 구역인 장진(長津)풍산(豊山)갑산(甲山)등지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라고하는데 어린소년들로 도로목과에서도 대경실색하야 지난이십오일 즉시로 중천(中川)등삼청부업자를 초치하고 엄중히경고하는한편 각공사현장에 그진상보고를 전명(電命)하얏다

본래 이공사청부게약(請負契約)에는 임금지불은 오일간한번식으로하되 목적이 궁작민구제이니만큼 전표(傳票)나 물품(物品)으로 바꾸어주지말고 반듯이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체결(締結)되야잇는데 각청부업자가실지 공사현장에가서는 로임(勞賃)을 십일에한번식지불한다고하며 그것도 현금이아니고 물품까지 바꾸어준다고 한다 그럼으로 그날그날의 생활방도에궁한 재민들은 전표(傳票)를 예매(豫賣)하게되는데 적어도 일할혹은 이할가량식 제하고 돈을찻게되는것으로 하로겨우 오십전내외간의 임금중에서 실지 손에쥐우는 돈이라고는 불과사십전내외간밧게 안된다고하는대 이것은 최초부터 청부업자의 계약위반의 불법행위로서 도당국에서도 이에전멸을꾀하야 엄중히 감시할터이라고한다

군의 우승을기념하야 리리유지측에서는 리리에도 꼭잇서야할 조선인 체육기관이 아직것 업슴을 유감으로녀기고 체육기관을 만들라고 그동안 준비에분망하든중 지난이십사일 오후칠시에 다시 리리상산병원으로모혀서 구체적으로 모든협의를할라고하엿스나 부득이한 형편으로 유감스러우나 또대로일우지를못하고 무기연기를 하게되엿다고한다

腐敗한牛肉中毒
九名의死傷慘劇
個中에는全家族沒死도잇서
大阪市東成區內에서

【大阪】지난이십삼일에 동성구학교 북지정경강일홍(東成區鶴橋北之町景岡一雄)방에서는 소고기를 사다가 하야시라이스를만들어먹고 가족삼인이 소고기중독으로 몹사를하고 도지난이십삼일에 동구동소교북지정 송천신삼의 장남송천조(同區東小橋北之町松田信三長男操五)도 소고기의중독으로 사망하엿스며 동구중도본정일정목삼십일번지 김지룡(同區中道本町一丁目三一金地龍)의집에서도 소고기를 사다먹고서 부패한 소고기의 중독으로김지룡의장남 김병오는 사망하고 그나머지가족사명도 중독되여 누어잇다고한다

體育會準備會延期

【裡里】기보=금번 우리선수손기정(孫基禎) 남승룡(南昇龍)량

鎭南浦商工會頭
遂辭任을受理
九月一日後任을決定

【鎭南浦】압진도중에잇는 항도진남포의 가장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진남포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는 회두령목공일(鈴木穰一)씨가 수개월전 돌연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자 밤끔 진남포로써 상수도문제、산업철도부설등 중대문제를 아페 두고잇는 이만치 회의소에서는 수차나 의원총회를 열고 회두류임을 권하여오든바 지난 이십오일 오후세시부터 회원총회를 열고 류임 권고의원의 보고를 드른바 령목씨본인은 류임할 의사를가지고 잇스나 가정에서 절대반대함으로 부득이 류임할수업는 형편이라는 보고임으로 의원일동은 부득이나 의외의보고임으로다시 더론의할여지도업서 사임을 수리하기로 가결하엿다 후임은 제에드러가 의론이분분하다가종분히 고려할필요가잇다고해서오는 구월이일 다시총회를열고회두문제를 결정하기로 되엿다는바 진남포상공회의소 회두의의자는 누구에게 도라갈는지 예우주목되는바라고하며 후보자는 삼산、중치、하촌(森山、重氏、河村)의제씨의 설이 잇스나 삼산씨설이 가장유력하다고한다

平康郡下에서
新藥水를發見
成分目下分析中

【平康】평강군현내면 백룡리(縣內面白龍里)에잇는 룡암산(龍岩山)중에서 평강읍에잇는 천주교회신부 김피득(金彼得)씨가 전과 룡암산부근의 지질(地質)을 조사하려갓다가 우연이 약수를 발견하엿는데 함유성분은 지금 강원도위생과에서 조사중임으로 자세한것은 알수업스나 경험잇는사람들의 말을듯건대 근래에 유명한 삼방(三防)약수에서 별로떠러짐이 업는듯하다함으로 현내면에서는 벌서로가수선을하야 약수의성분이 판명되면 지방발전을 예기하고 일반주민들은 긔대를가지고잇다한다

三陟地方에또豪雨
處處에交通杜絕
河川氾濫橋梁流失이頗多로
重要工事에도大打擊

【三陟】지난 이십이일오후부터 나리는비는 이십사일에도 끈칠줄모르고 퍼붓는바 이로인하야 각지하천은 범람되여 울진、삼척간에는 룡화천(龍化川)이 불통되고 호산교(湖山橋)가 류실되엿스며、삼척、정선간은 처처에도로가류실되엿슴으로 교통불통되기까지는 적어도삼개월은걸리리라고한다 이외에도 삼척개발에관한 각처대공사도 적지안흔타격을바덧스며 농작물의 피해도만흐리라고 예상된다

楡岾寺主持選擧
金坦月氏가當選

【高城】조선불교의 연원인 금강산 대본산 유점사(楡岾寺)주지 김태욱씨는 모든사정으로그직을사하고 수개월동안 결원중에 잇든바 지난이십이일 유점사대강당에서 부임자를 선거하엿든바 투표유자격자 구십팔인중 일표는 무효에부치고구십칠표로 선거한 결과는 김탄월(金坦月)씨오십삼표 김청암(金靑庵)씨사십사표의 득점으로 김탄월씨가 당선되엿다한다

浸水畓은全然絕望
被害程度去益慘酷
近數十日間浸水로腐敗全滅
慶北에被害八百萬圓

【大邱】경북도내의 수해지 침수답(浸水畓)농작물은 다소소생하리라고 예상하야오든바 근이십일동안 물은 츨지안코 그대로친수되여 잇는관계로 농작물이 전부썩어 전멸상태라한다 그럼으로 농작물피해는 제일회조사액과 배나 초과하야 대략팔백만원으로 예산한다고 한다 이로말미아마 경북일대의 수해지는 벼욱 대소동중에 잇다고한다

改過못하는
藥種商에罰金

【碧潼】평북벽동은 만주국대안을접근한곳으로서 옛날부터 모루히네 중독자가만헌바 당지경찰당국의 적극적취체에 나타낫든 중독자는 거의 다ー치료가 되엿스나 신사적 마약중독자가 이상에잇서서 그에 제공하는마약의 출처를 조사한결과 당지읍내 일동에서 약종상(藥種商)영업을하는 문모(文某)의 행위인것이 탈로되여 수차의 설유와 맛증내는 벌금 륙십원에처한 사실이 잇슴에도 불구하고 그의행위는 점점더하여 오히려그 팜픈는 터ー널버젓슴으로 당지경찰서에서는 지난 이십일에다시 문모(文某)를검거하야 취조한결과 모ー든자백을따라 그에 벌금을 또 백원에 처하엿다는데 이약종상으로 말미아마 마약에 대한해독이 지방적으로크다고한다

慰安의밤盛況
本報宣川讀者

【宣川】도구고별(渡歐告別)인사차로 전조선각지를 순회하며 신작무용(新作舞踊)을 발표하는무용가 조택원(趙澤元)일행의 래선(來宣)을마처 본보선천지국에서는 지난이십삼일 〃독자위안의밤〃으로 당지선천극장에서 공연하엿는바 정각전부터 무여드는 군중은 실로예상이상의 대만원으로 성황을일우엇스며 연구(硏究)와 련마(練磨)로 거듭한 그들의 묘기는 일반관중을 황홀케하엿다

◇江華마라손選手出發光景과優勝選手(旣報)

佛像橫領嫌疑?
青年一名檢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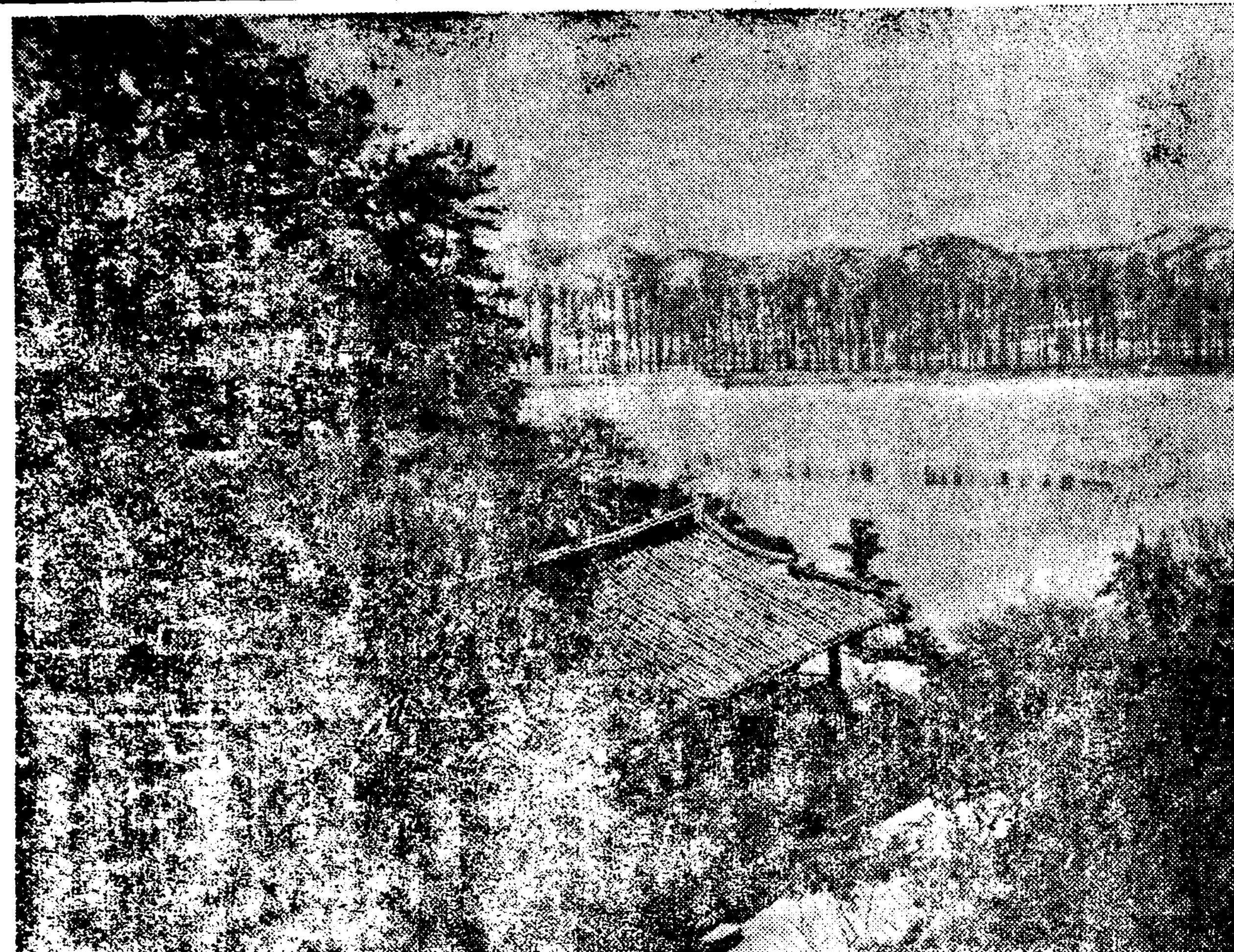
【咸安】지난이십오일에 진주경찰서관할인 이반성면주재소원이 출동하여 군북면동촌리에잇는조용우(趙鏞佑)를 검거하는일방엄중한가택수색을하고 오후네시삼십분발 진주행열차로 전기조용우를 압송하여갓다는데 사건내용은 극비밀임으로 알수업스나 들은바에의하면 전기조용섭이가 어떤녀자에게 불상(佛像)을하나 바다서 보고들려준다하다가 분실되엇다하며 돌려주지안한사건이라한다

實現期成會組織
目的貫徹에邁進
懸案의新昌築港問題

【新昌】다년간 현안중에잇는함남신창항 축항문제는 만근에이르러 수천면민의 열의와 관계당국자의 적극적 방침하에 지난달부터 측량에 파견등으로 겨우 구체화하여간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신창축항긔성회(新昌築港期成會)에서는 회장유면장(兪面長)잇 관민유지제씨를 망라한 조직단체로서 측량후 급속촉진 민간부담균형 진정의원파견 측량보조비등 제문제에 관하야 원만가결에 매진중인바 벌서부터 동긔성회에서는 당국자의 이에대한 관심을 갓게되리라고 든든한 자신을 품고 민간부담긔부금을 모집중이라는바 임반은 희생적 특지로서 모도 자진적 희사가 벌서 답지하여온다고한다

勞働者黃金時代!
咸北沿岸各工場地帶에는
勞働者不足으로唐慌

【羅南】대규모의、공장진출(工場進出)개발사업 정어리(鰮)경기등으로 함북일대의 로동시장에는 요사이 로동력의 공급부족으로 대파란을 이르키고잇다 아오지(阿吾地)의 석탄액화(石炭液化)공장 직공을비롯하야 영안(永安) 길주(吉州)의 공장로동자 성진(城津)라진(羅津)청진(淸津)등 부두로동자 회녕(會寧)무산(茂山)등지의 광산로동자의 총수효는 지난륙월말현재수로 이만오천명을 돌파하고 잇는데아즉 부족하야 모집중에잇는 수효가 칠천여명이고 소위 정어리 시절에 들어서 청진을 중심으로 한해안지대에 급작히 필요하게 될수효도 오륙천명을 요구하고 잇다 현재 청진부내가튼곳은 건축열(建築熱)과 정어리경긔에 로동자가 몰려가버리고 일반자유 로동자는 구할라야 구할수업는 긔현상을 보이고 잇다는바 아프로 필요하게되는 로동자는 공장과 망산건축에대한 숙련한 직공과 일반자유로동자등이라하야 각관계 당국에서는 이들 로동자의 유지에 가진방법을 다하야 모집중이라한다



◇……皐蘭寺 百濟古都扶餘名勝巡禮의一 皐蘭寺는 扶蘇山北에잇는 百濟의古刹로 岩面에는 皐蘭이 叢生한다하야 皐蘭寺라 일카른것이다。 前面에는 泗沘가 洋洋히흐르고 後方에는 絶壁이 嶙峋히소섯는데 寺의左右에는 羊腸가튼石逕이 俗界를通해잇다。 ● 堂宇는 蕭洒하고도 閑雅하야 詩情을끄을고 境致은 淸淨하고도 幽邃하야 仙境을 늣기게한다 老僧의 誦經하는소래와 淸晨에 寥寥한 鐘磬소래는 더욱 脫俗의情을끌어낸다。

鍾紡全南工場
二千의아가씨를차저서(二)
"돈버리조타"고 누구가하더뇨!
收入은적고過度한勞働에 어엽뿐얼골이蒼白해갈뿐……
光州支局 一記者手記

이리하야 오후여섯시반부터는밤을낫으로 삼지안호면 안되는야근공(夜勤工)과 교대(交代)를하게되는데 전직공의총수를 절반식 주야로갈러 일주일마다 낫과밤을 바꾸어서 일년삼백륙십오일동안 공장의긔계는 일초동안도 놀리지아니하고잇다

우렁차게 돌아가는 긔계와날카롭게 휘돌으는 감독자의눈살미테서 백도가넘는열도에 먼지가석긴공긔를 호흡하며 칭칭한공장속에서 뼈가아프고 살이달토록 일하는녀공들은 대개가십륙칠세의꼿가티 아릿다운 처녀들과 이십전후의 젊은녀인들인데 그대다수가 각지농촌에서 모집되여온사람으로 그중 특히전북지방과전남도남부각군등지의 사람들이만타는바 그들은 정든고토와부모형제를떠나고 정리타향의 외로운신세로『종방전남공장』은 버리조타』는 소문을듯고 와잇는그들의수입은 과연얼마나되는가?

그러나 놀라지말지어다! 처음들어온녀공들은 하로십이시간로동에 이십오전으로 일년이상이되여 익숙한녀공이라야 이전을승급하야 이십칠전에 지나지못하고 최고사십삼전을 밧는녀공은 이천여녀공중에서 불과륙명밧게 업다는대 이얼마나 근소한수입인가 그러면 근소한수입으로어떠케살어가겟느냐는 의문을누구든지 가질수잇슬것이다

그적은수입으로 호구만은 하야갈수잇는 방법이잇스니 그것은 곳사내긔숙사(社內寄宿舍)라는것이잇서서 그구조를보면 륙칠조(疊)식이나 되어보이는 적은방들이 줄비하게연하야잇서서 한간에평균 십수명식을 수용하고 문간에는 수위(守衛)가 이중삼중으로잇서서 교대로 번을서잇스며 사감(舍監)의날카로운 시선을 부절히 그들의행동을살피고잇서서 극히자유를 제한한다는것이다 그리고 먹는음식역시 한공긔(보통공긔만한것)남짓이드는양철그릇에 보리와 감자쌀로지은밥(증기로쩌서)과 김치쪽이 그들의 정식이라한다

그나마 아침은 너무나 일으고 점심은 먹을시간이 모자라며 저녁은 외출일시달려 긔진하야서 올케들 먹지못하고 그적은 양(量)의밥도 남긴다고한다

그리고 한달긔숙사식비(寄宿舍食費)남자는 사원팔십전이며 녀자는 사원오십전이라고하니 더말하지안트라도 한달 사원오십전짜리생활비이니 그들의 정경을 능히 짐작할수잇슬것이다

그리고 쉬는시간일지라도 일요일을물론하고 절대로 외출(外出)을불허하며 상당한연조와 신용이잇는녀공이 아니고는 사정의여하를물구하고 절대외출의자유가업게되야 중병이들어 고향부모들이 불러오더라도 외출을불허하고 병이위독하여 시간을다투는시에야 고향으로 다리고가라한다 그입례를들면 요사이에도 이삼건이잇스니 려수군돌산면(麗水郡突山面)사는 박모방(朴某房)(二七)이란처녀는 중병에걸려 고향에가든도중 자동차속에서 순천(順天)부근에서 죽고마랏스며 전북완주군소양면 (全北完州郡所陽面)사는 강명희(姜明嬉)(一七)란처녀역시 귀가즉시사망하얏스나 한등의위문금일푼도 주일이업다한다

로동시간이 이러케도 지리하고 먹는음식물이 이모양이며외출의자유가 이러케도업스니 그들의 영양(榮養)과 건강(健康)은 보지아니하야도 가히짐작되거니와 일년삼백륙십오일을 두고 태양이동에서뜨는지 서에서뜨는지도 모르고 쌀과 고기가 어떠케 생긴것인지도 이저버리게된 그들의 생활이니 얼굴비츤 마치 중병이나 알코난 사람처럼 창백한비치 가로질리여 잇스며 신체는 쇠약하야저서 요자음가티 이더운 철에는 간간이 졸도하는 직공도 비일비재이라한다

(繼續)

江景平野를中心
洪水一過後慘狀
穗房에물이들어서全部枯死
豐年의謳歌는夢想化

【江景】금강의범람으로 배수를 불능이되야 오륙일의침수를 당한 강경평야부는 시긔가마침 중생은방주(中生銀坊主)의 잉태할무렵이되여서 그발수를 심히우려하든바 연일강우로 근사십일동안이나 물속에들어잇는 벼때는 지금까지 만종이외에는 발수가 대개되엿는데 수방에 물이들엇든까닭으로 벼낫은 한알도붓지안코 말려부른벼대만 나와서실로 처참하게되엿다는바 전평야부의 약사할이상이 중생은방주로서 소작농가의 몰락을 여지업시 시키고잇스나 이전상은다시구제할길이 전연업서서 농회당국에서도 대책이도모지업다하며 풍년을말하든 어제날이 일장의꿈이되엿고 농가의자탄하는소리가 자못자자하다고한다

三湖商務會主催
全朝鮮씨름大會
空前盛況裡終幕

【三湖】기보=함남 삼호에잇는 상민긔관인 삼호상무회(三湖商務會)에서는 팔백여원의금액을 드려 본보삼호지국후원하에 제이회전조선씨름대회를 지난이십삼、사량일간 개최하얏든바 공전의대성황을일우엇든데 제일일에는 손、남량군의전승긔념으로서 마라손경기까지잇섯는바 우승자는 다음과갓다고한다

第一日=씨름一等優勝者=大牛一頭(時價八十圓)京宇一疋 新浦 李成周

第二日=씨름一等優勝者=大牛一頭(時價百三十圓) 廣木一疋 龍源 金恒洛

第二日=騎씨름優勝者=金一封 金恒洛

마라손優勝者 金一封 咸南興上 朴台權

宣川에도牛疫
四十餘頭가受療

【宣川】각지에서 만연하여 만흔공황을 주고잇는 농우(農牛)의 리질이 선천지방(宣川地方)에도 류행하고잇다

이병은 아직 병균의 정체를 발견못한 리질로 억지로 갈고라고 병명을 붓치여 치료한다는바 현재 군 축산계(畜産係)에 보고하여 치료를 밧는것이 사십여두에 달하엿고 그외에도 상당히 만흘것을 예상하고 잇다하며 남면석화동(南面石和洞)에서는 그병으로 인하야 죽기까지하엿다는대 원체병의 유행성은 빠르나 그리 악성은아닌 관계상 큰우려는 업스리라고한다

安東體育會創立

【安東】전조선각처의유수한도회지 체육지도기관이 업는곳이업스나 오즉 경북안동에는 아즉 이런단체가업서서 모다 유감으로생각하든바 지난 사월경부터 여러번 발기를하여도 늘의견의

地方人事

▲朴熙鍾氏(大邱輕鐵醫院長)開業人事次本報大邱支局來訪

▲福田俊雄氏(尙州郡內務主任)新任人事次本報尙州支局來訪

▲東尙鳳氏(尙州副邑長)新任人事同上

▲李萬寧氏(內西面長)同上

▲岩橋新一氏(大田警察署刑事部長)轉勤人事次本報江景支局來訪

▲鄭炳선(秋風面長)新任人事次本報尙州支局來訪

▲韓相氏 靑松郡府東面長新任人事次本報尙州支局來訪

▲関東大氏(尙州郡屬)新任人事次本社尙州支局來訪

▲小島晋氏(尙州郡屬)新任人事次同上

父親의回甲을記念
一金千圓을喜捨
敎育界와社會施設에

【成歡】경부선성환역전 성환권농주식회사(成歡勸農株式會社)전무취체역 리영주(李榮周)씨는금월이십사일이 씨의부친 리영남(李永男)씨의 회갑일이엇든바이날을긔념키 위하야 그의 부친 리영남씨의 명예에따라 성환공립보통학교 학급증설긔금으로 륙백원과 지긔가 현재거주하는성환면 성월리(成歡面成月里)의공회당건축자금으로 이백원과 리영남씨의 출생지인 성환면안궁리(成歡面安宮里)의 자금으로 이백원 합계일천원을 긔부하엿다 이에따라 성환사회에서는 리씨부자의 칭송이 자자하다한다

金堤

全朝鮮弓術大會

▲時日 九月一日부터三日間(雨天延期)

▲場所 金堤 靑雲亭

◇主催 金堤 靑雲亭

◇後援 朝鮮日報金堤支局

愛慾의彼岸

【87】 李光洙 作 金康穆 畵

혜련은 집으로 돌아갈 맘이 업섯다。저 강스가 풀바르르한 정업시 걸어가고만시펏다。혜련의 맘을 설레는듯도 하고 갈아안즈는듯도 하고 도모지 지향할바를 몰랏다。적어도 주상으로는 만족할수업는 마음 가탓다。혜련의 신경은 대단히 흥분한 상태에 잇는듯하다。그의 신경질로 생긴 선천적인 체질때문일까。

혜련은 구두와 치맛자락이젓는것도 돌아보지아니하고 강스가로 걸엇다。강스구비 물스결업는곳에 적은 배 사오척이매워잇섯다。더러는 물에 떠서 흔들리고잇섯다。돗대도 업고 치도 사앗대도 업는 배들이엇다。배스속에는 빗물이 고여잇섯다 혜련을 그 배들을 볼때에제 신세와가튼것 가티 생각햇다。어드로 갈른지도 모르는 배들。마치 내버려진것가튼 배들。

혜련은 강스가 풀바테 들어섯다。밀풀、클로버、베롱 이러한 풀들이 이슬에 저젓고 그 미테서는 벌서 가을 버러지들이 울고 잇섯다。해는 산곳과 송림에는 비최엇지마는 이 풀판에는 아직도 비최이지아니하엿다。

그 때에 마즌편 동독우에 나타난 두 사람。혜련의 가슴은 울렁거렷다。그것은 누구인지는 몰랏스나 혜련의 마음을 그처럼 흔들엇다。

그 두 그림자는 점점 가까이 왓다。혜련은 그중에 하나가 옵바 종덕이것을 알앗다。다른 한 사람은 누런 무명따바지에 흰 와이샤쓰를 입고 수염이 나는대로 내어버려두고 머리도 언제 깍근지 모르게 텁부룩한 이엇다。

혜련이가 오빠라고 부르기전에 종덕이가 우뚝서서 혜련을 바라보며、

『거 혜련이 아니냐』

하고 웨첫다。

『네 오빠 언제 오셧수?』

하고 혜련은 저즌 풀을 헤치고 종덕이 선 곳으로 빨리 가려고 허둥지둥 걸엇다。여기서 오빠를 만난것이 그러케도 반가웟던것이다。집에서 쫏겨나다시피한 바랑한 오빠。그래도 차자 첫이 날수록 그 오빠에게 동정하는 마음이 혜련에게 일어낫다。

『강선생님이시다。강선생님이 너를 한번 맛나보신다고 위해 오셧서、금강선서』

하고 종덕은 감격한 어성이엇다。

혜련은 멈칫 서서、강선생이라는 이를 바라보앗다。그이는 분명 강진표선생이엇다。

『아이 선생님』

하고 혜련은 다리가 구더지젓가타서 더 옴겨노흘수가 업섯다。

『우리가 그리 갈테니 오지말어』

하고 강선생은 단상으로 풀을 헤치며 뚜울나려왓다。

『날 알아보겟서?』

하고 강선생은 혜련을 울끄럼히 보앗다。혜련은 그 가슴에 안기고십도록 강선생이 반가웟다。

『선생님!』

하고는 혜련은 더 말이 업섯다。

『어、그것이 벌서 오년이냐、되나? 혜련이가 아직 삼학년쩍이지? 사학년쩍인가? 몰라보게 되엇서。』

하고강선생은 한숨을지엇다。

『해라 허시지、무얼 그러케맙하세요?』

하고 종덕이가 강선생께 항의를하엿다。

『응、해라도 하고십지만、어디 지금 그럴수가 잇나? 내가이번에 오년만에 고국에를 돌아와서 서울서도 아모도 찻지아니하고 바로 금강산으로 갓서。서울서 누구를 차즐것이잇나? 그래 금강산에서 정양을하고 잇는데 종덕군을 맛낫단말야。종덕군을 보니까 혜련이도 한번맛낫스면 하는 생각이 나단말야。그래서 종덕군을 따라서밤차로 여긔와서 나렷서』

『그럼 어느 여관예?』

하고그제야 혜련도 입이 열려서 강선생에게 뭇는말을 종덕이항하고 물엇다。

『아니、정거장에서 오는길야。원산에 보면알사람도 어렷이 슬것갓고、그래서혹시 혜련이나 새벽산보나 나왓스면 자기가고 다유하로 가랑으로』

하고강선생은 옛날 그 얼굴는도시 스름 눈

經濟解說

蘇聯經濟政策

● 大體變遷의 內容

「蘇聯은 資本主義에 還元하는途中에잇스나 이것은 決코 自由主義로 逆轉이 아니다. 經濟의 基礎的所有關係는 依然히 社會主義的 所有로 維持되고 生産手段은 依然不變하다. 農夫가 土地를 所有하고 또그 勞働生産物을 自由로 賣수잇슬 所有케된 小農이 잇서 有力한 地位를 占하고잇다. 그러나 이것은 工業組織의 發展과 變化에 比하면 그 重要性은 매우 微弱한에 不過하다」 이것은 一九三二年의 太平洋會議에서 一米國學者가 말한바인데 蘇聯經濟政策의 變遷은 世界的으로 論難되는것은 近來의 英米로 만재 스타-가잔 國家資本主義的政策이라는 目的에 이 問題를 取扱하얏는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갓다.

×

蘇聯의 經濟史는 이것을 四期로 區別할수잇슬것이다. 먼저 第一은 一九一七年 乃至 一九一八年의 革命期는 社會主義時代로 말할수잇는 經濟的政策으로 國民의 生活標準을 顧慮하지안코 一九二一年의 水準以下가 되는 狀態를 보것다 그뒤 一九二一年 所謂 네프 新經濟政策은 商業及 農業을 一部的으로 私的企業의 方向으로 還元케하고 新大衆의 途를 밟어 所謂 計畫經濟의 基礎가 成就되엿다 第三期計畫 第一次五個年計畫(一九二八-三二年)은 生産 特히 資本財가 制限하야 私農業의 發達가 消滅케되엿다.

×

第四期는 所謂 第二次五個年計畫이 進行中의 現在이다 이것은 輕工業의 急速한 發展과 國民生活標準의 向上을 目標한것이다

어떠튼지 一九一七年以來 今日까지의 顯著한 變化의 結果 國家는 모든 生産手段、生産材料、資本財、工場其他 必要한 一切가 個人의 勞働力도 그손에 占有케되엿다 個人의 私有財産으로 許하는것은 國庫債券、一住宅、一自動車로 消費財도 極히 限度로 한정하엿다.

×

蘇聯의 生産은 大體 經濟參謀本部인 「고스플란」이 統制되고 國家 그 自身과 國家의 指導下에 잇는 生産者의 協同組合에 依하야 運用된다 그 統制의 方法은 먼저 專門家와 關係機關이 잇서 이 機關은 所謂 統制數字를 決定한다 이것은 各方面의 役割과 各種商工業의 中央機關에 伴하되고 此等機關은 이것을 다시 各種의 工場과 勞働者에게도 內示하야 그 意見을 듯는다 그래서 처음의 數字에는 여러가지의 意見과 修正을 하야다시 專門家機關손으로 도라가는바 專門家機關은 各生産工程의 數量과 價格에 對하야 統制數字를 決定 所謂 統制數字의 最後的 完成이다 生産費와 價格과의 關係如何는 資本主義的 企業에는 利潤이 생기고 또는 損失要因으로 되는바 蘇聯에서는 國營의 工業 또는 生産者의 會는 이에 對한 何等 統制力도 업다.

×

그러나 此等制度도 때가 經過하는 同時에 多少修正되여 가는 注意할일이다 第一에는 國家事業의 財源增加로 産業의 利潤을 認容되어야 第二에는 國營企業의 協同組合企業과의 事業에 關한 權限을 漸次 地方的 中央機關은 各企業의 行政의 小企業에 委讓하고 將來 이런 地方分散的 傾向은 더욱 增大의 傾向이 잇다 ―(完)―

八月十五日現在

今後天候順調이면 平年作은 僅保

京畿平南은 多少不良이나 三南地方은 良好

朝鮮全道의 水稻作況은 移秧期부터 旱魃 天候不順하야 移秧不能의 面積이 約五萬町步에까지 達하야 全體되는바도 적지안햇는데 八月十五日 現在의 報告에 依하면 移秧面積 約百六十二萬四千町步에 對하야 京畿道와 平南道가 多少 不良이外에 三南地方은 大槪 普通이며 其餘는 比較的良好한 便이므로 今後 天候條件만 順調하다면 平年作은 保持될것으로 觀測되고잇다.

【廿七日農林局發表】

低溫과 寡照로 分蘖이 不充分

本年의 水稻作況은 苗板初期의 氣溫이 低下하엿고 播種期도 例年에 比하야 一週間內外의 遲延을 보앗스나 其後高溫多照로 推移하엿슴으로 苗의 生育은 順調로 經過하엿다 移秧狀況은 冬期以後의 雨雪이 一般으로 적고 貯水量이 적엇슴에 더욱히 西北朝鮮及 中部朝鮮地方을 中心으로

晩春

부터 七月下旬까지의 期間에 降水가 적기때문에 激甚한 旱魃이 襲來하엿슴으로 移秧用水가 顯著히 不足하야 드되어 五萬町步內外의 移秧未濟의 面積을 보게되엿다

然而 七月末以後 全朝鮮的으로 降雨가 豐富하엿서 八月中旬 南朝鮮 中部地方은 數次의 豪雨에 被襲하야 相當히 廣範圍의

水害

를입고 此間低溫寡照로 分蘖十分치못하야 生育幾分徒되엿다 病蟲害의 發生은 南朝鮮地方에 螟蟲、稻熱病의 發生이 잇스나 局部를 除하고 被害가 크지안타 八月十五日現在 各道別作況은 如左하다

道名	槪況
京畿道	稍不良
忠淸北道	稍良
忠淸南道	普通
全羅北道	普通
全羅南道	普通
慶尙北道	普通
慶尙南道	普通
黃海道	普通
平安南道	稍不良
平安北道	普通
江原道	稍良
咸鏡南道	普通
咸鏡北道	良

【備考】(一)作況의 區分은 左의 標準에 依함

▲良=普通作況에 比하야 增收一割以上의 豫想의 境遇

▲稍良=普通作況에 比하야 增收三分以上一割未滿豫想의 境遇

▲普通=普通作況에 比하야 增減收三分未滿豫想의 境遇

▲稍不良=普通作況에 比하야 減收三分以上一割未滿豫想의 境遇

▲不良=普通作況에 比하야 減收一割以上豫想의 境遇

(二)作況과는 作付段別의 增減의 相減에 相關치안코 다만 作況의 良否를 意謂한것이며 普通作況은 前五個年間의 中庸作況을 말한것이다

最近天候를 憂慮

九月부터 面積更新調査

▲…山本農林局技師 談

八月十五日을 現在로하는 作況으로 그뒤의 南部中部朝鮮의 多濕低溫等이 그中에는 加味되지안엇다 이에 今年九月로부터 更新調査에 드러가 移秧面積도 正確한 更新調査를 하게될 關係上 全朝鮮的으로 良、不良의 平均을 내일方針가 잇서 이平均은 얼마 八月十五日 現在에는 普通으로볼것이라 最近의 天候狀態으로 하면 相當히 憂慮될것으로 생각한다

白金市價暴騰

京城市中二十七日의 白金市勢는 賣二十四圓五十錢으로五十錢高、買二十一圓丁으로 一圓의 暴騰이엇다

產業 經濟調査會

財界一部의 觀測

總督府는 朝鮮經濟의 發展에 寄與하야 産業經濟調査會를 設置하고 有効適切한 産業指導方針을 確立코저 十月中에 第一回調査會를 開催키로 決定하얏는데 右에 對하야 財界一部에서는 如左히 期待코잇다한다

産業調査會는 大正十年에 設置되엿섯슴에 民間有力者로부터 자못時宜的이오 有效한 案이 提出되어 그 決議로 된것만으로도 今日에이미 着着 그實行中의것은 産米增殖計畫、養蠶統制、産金奬勵政策等이 잇서 그當時의 決議가 今日 躍進的으로 發達한 朝鮮의 産業根本的 指導精神이된것이다 其後數年前 再次 産業調査會를 設置하야 委員會等을 開하고 檢討하얏는데 委員이 朝鮮만으로 物色되것과 總督府의 原案이 너무 만엇고 各委員이 腹案을 研究할 餘裕가 적엇든 때문에 所期의 効果를 擧키에 至치못하고 討論會에 終하얏스나 今回의 調査會는 그 委員候補者를 불지라도 在朝鮮 民間有力者外에 此種 機關委員에 經驗잇는 日本內地 有力者가 加하얏슴으로 充分히 檢討할 時日을 與하면 相當히 興味잇는 成果를 得하리라고 期待되며 特히 商工業에의 積極的 施設은 아즉 着手되지안엇스나 이方面에의 期待가 가장 만타

棉花栽培記念

廿七日에 式擧行

【木浦電話商通】全南道農會、木浦府、木浦商工會議所、朝鮮棉花同業會 共同主催의 棉花奬勵三十年紀念式은 廿七日 午前十時부터 木浦公立小學校에서 矢島農林局長 松本全南知事、石塚 千田兩總督府技師 湯川水原農事試驗場長을 비롯하야 官民多數가 出席한뒤 擧行하고 下午에 閉會한뒤 同所에서 午後二時부터 全朝鮮棉業大會를 열고다음

棉花共販基準價

前年대로 踏襲을 決定

各道棉作主任官會議는 二十六日에 終了하고 直時 矢島農林局長以下 關係官은 二十六日夜木浦에서 開催한 棉作三十週年紀念式과 標準棉花 査定會議에 臨하얏는데 棉花共販協議는 如左하야 前年度方針을 踏襲키로 決定하얏다

一、標準棉花及等級 「스트릿드·밋도링手」를 標準으로하고 그 等級比率은 前年踏襲

一、基準價格調査方法 大阪神戶支店에 集計報告 前年대로

一、繰綿率과 種子率 前年대로

一、繰綿買込의 諸掛費의 若干의 低減을 보앗스나 其方法은 不變

그리하야 問題의 大阪神戶渡의 朝鮮內工場變更問題는 朝鮮産棉花의 消費狀況으로 依然 阪神市場에 依存하는 情勢임으로 現狀維持키로 決定하얏다

過去를 決議를 하엿다고한다

▲決議 現下의 國際情勢는 帝國紡績原料의 需給調節과 國民經濟의 進展上 一層 積極的으로 國內棉花增産의 必要가 緊切함을 보고 吾人은 朝鮮總督府의 綿花增産計畫方針을 絕對로 支持하고 빨리 그大成에 일호기를期함

그리고 同紀念事業으로 二十八日부터 三日間 木浦小學校에서 日本內地 朝鮮의 權威者를招聘하야 紀念講演會를 열고 또朝鮮陸地棉의 發祥地인高下島에 紀念碑를建設키로되엿다고한다

有煙炭鑛에進出

東拓鑛業에서

東拓鑛業에서는 東拓으로서 繼承한 金山과 炭鑛의 維持經營에 努力하고 融資申込을 受한 北朝鮮의 二、三有煙炭鑛을 基礎로 別個로 各其炭鑛會社를 設立하야 그 過半數를 持株하고 利益을 折半코저 計畫中으로 모다 近間會社를 設立케되리라한다

袋入白米不賣實行 一個月延期키로

齋藤穀聯幹事長歸來談

朝鮮白米袋入米不賣問題에 關하야 滯阪中이든 齋藤穀聯幹事長은 二十六日 歸任하야 다음과 가티 말한다

袋入白米不賣實行期는 九月一日부터 하기로 決議한바 우리一行이 滯阪하야 數次折衝한 結果 實施期를 一個月延期키로 되고 그동안 朝鮮側에서 不遠 穀聯幹事會를 열고 大阪側과의 協定原案에 基하야 對策을 考究키로되엇다 그리고 定款改正의 件은 各方面에 運動한結果 完全히 封鎖키로 되엇다

平壤의 火力發電

野口·森氏着目

西鮮電氣가 擴張施設로서 平壤船橋里에 所有하고잇는 火力發電所(現能力一萬키로)의 利用에 就하야서는 最著日本曹達에서 提議하엿스나 結局不調에 終하얏는데 野口遵氏 森矗昶氏는이에對하야 相當히생각이잇서 近間으로던지 利用케될것으로 西鮮電氣及 朝鮮無煙炭會社에서는 極力그 利用을 熱望中이라한다

金組聯合理事異動

不日中四五名辭任

金組聯合會에는 今年八月로써 創設滿三個年에 該當한데 이와同時에 金聯理事는 今年三月에 入會한 河野事業部長을 除하고 十七名이 八月三十一日로써 任期滿了가되다 이것을 압두고理事改選이 總督府와 金聯首腦部間에 協議가 進行되고잇는데 그陣容一新이 實現되기로되엇다 大體十七名中 勇退者는 四五名인바 이에는 金聯部內의 優秀한者를 拔擢할 豫定이며 그와 同時에 各道의 金組理事에도 相當히 勇退者가날모양이다 그리고 異動은 兩日中에 發令되리라한다

取引停止 (八月二十四日)

▲京城府壽井町九七番地沈鳳求 ▲京城府孔德町三九六番地 鄭海鎔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二一番地光星紙物商會李長星

經洛寸鐵

○이번 棉作官主任會議서 朝鮮産繰綿買込의 費用에 大阪神戶渡 運賃 計算은 朝鮮內工場所用이만흐니 不合理하고 農民에게 不利라 하야 內工場渡로 改訂하리라 期待되엇더니

○「朝鮮産 棉花消費狀況으로보아서」 라는 理由로 現狀維持키로」 決定하엿다고

○不合理를 알면서도 곳치지 못할은 무슨 까닭

○共販數量의 몃%가 大阪神戶로 건너가고 몃%가 朝鮮內工場에서 所用되는지 統計를 보라

商況 【廿七日】

株式 好勢이나 伸惱

前場好勢 今前場으로 後場

◇ 上海外電이 비록 悲觀材料는안잇스나 全面的 强調로 好勢이엇스나 昨後場에比하야 東新 五十錢高인 百二十四圓七十錢 鐘新七十錢高인 百六十二圓三十錢 日産二十錢高인 七十九圓六十錢 北紙二十四圓七十錢 日新百九圓五十錢에 大引되고 朝新三十一圓九十錢 大新六十七圓二十錢 日産新二十六圓二十錢

前場伸悩 後場은 東新百二十四圓四十錢 鐘新百六十二圓丁 朝新三十一圓八十錢 日產七十九圓三十錢 日產新二十六圓十錢 北紙二十四圓五十錢 大新六十七圓三十錢 朝取七十四圓五十錢

日產一次活躍?

日産은 一時東新代位問題까지나와서 八十圓臺로으로 買氣가잇섯스나 오래高價保合일뿐으로 좃처럼 더올나지못하얏섯지만 直系會社(子會社)의 業績이 良好하고 一割配當이 安定的이라면 九十圓乃至百圓은 이상할것이업는것이事實이나 얼른 强氣의理想價에는 達치못하는 原因의一은 增稅案의 形勢如何에잇섯든바 國策이 물정을정함으로 大增稅念慮도 적어저서 買氣다시 擡頭하야 今前場東京短期日產은 七十九圓九十錢으로 八十圓內迫이엇는바 第二段活躍에 移한모양이다

弱氣心境變化

東新은 三月以來今日까지 中段保合으로보아 六個月에亘한 中段保合이崩壞되면 廣田內閣不景氣政策으로 叩하얏던 八十二圓六十錢까지 大突入될것으로보앗섯는데 上場禁止問題以來 如斯한極端의悲觀論者가만헛슴에不拘코 市勢가 우로向함으로 弱氣心境에 變化가생길모양이다

小市勢圈離脫

低價後者이 하도오래엿슴으로 弱氣로서 消極的으로 나오는者업고 弱氣도賣叩치는 안코 實玉만가지고 버티어小市勢에이 慢性化하얏섯는데 昨後場來의商勢는 悉常치아니하야 비록目前의으로 大市勢가 곳 出現된다고 壯談은할수업슬지라도 小市勢觀에安心은것은 淸算할때가온것다 勿論小市勢觀이 그동안根强하얏던 時日이 오래엿더만큼 市勢가 上向할지라도 實方이좋지렴 退却치안흘것이나 實方의固執이 結局市勢를 크게反撥식히게 될것으로보이엿다

鐘新도新高價

鐘紡은 北中進出을비롯하야 事業大擴張에依한 資金必要로鐘新拂込、增資등이오래前부터 世間에流布되면서도 아즉實現은되지안엇는데 市勢全般的好化에依하야 買氣를더하고 今前場은大阪當地共히 百六十二圓臺의新高價로好勢이엇다

實物前場取引

▲日蓄亞麻 三七〇 ▲東滿洲 三七〇 ▲玉子製絲所 三三〇 ▲帝國

重要商品界事情

人絹整理時代

月末總會를注視

人絹聯合會의內紛으로 人絹市勢가 六十圓臺가 깨어젓스나 一面으로 原料필프가 世界的 供給不足으로 反騰하야 六十圓臺를 回復하고 相當히 堅調味를 보히다

◇ 그러나 一般人氣는 警戒에 傾하는便이 만코一面으로는 淸算市場에 잇서는 大下長、또現物에잇서는 會社十先約定六割餘의進捗等으로 이整理가 必要케되엇다 그래서 이整理가 안잇나면 큰市勢를 바라기어려운點도잇다。

◇ 그런데 今月末에 열릴 人絹聯合會社의 總會가 어떠케展開될가 또이結果는 市勢에어떠한 反映을 주게될가함이目前에잇서 注目을 끄흐며 만약總會의 結果가增産을 보게될境遇에는 需給關係는 根本的으로 變化를 보게될것이다 그러치안코 需給關係가 큰變化가 업게되면 市勢가 上放케되지안흘가한다고……

今日財界 (廿七日)

◆米 (單位一石)

	今日	比前日
仁川正米	三二〇〇	不變
大阪正米	三二四〇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一斤 價三等	[illegible]	

◆株 (單位一株)

	今日	比前日
東新	一二四四〇	
鐘新	一六二〇〇	
日產	七九三〇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絹紡	[illegible]	

◆金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起債界의 活況과 株式의 好化로 人氣堅이오 內債二、三十錢引締이엇고 外貨債는 一兩日來實한 關係로 利金을降하야 二、四十錢下押이엇다

▲甲部五分利 一〇一、一五 ▲佛貨四分 一九八、四〇 ▲二回四分 一〇一、六五 ▲米貨六分半 四十錢下押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一二 ▲第三五分 一〇一、六六 ▲一回四分 一〇二、四〇 ▲二回四分 一〇一、四〇 ▲佛貨四分 一九八 ▲米貨六分半 四一〇、七

期米 少高下後 釘着

前場少弛

昨後場阪地三十一圓七十九錢止와 共히 三十圓四十六錢에 場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七十八錢인 一丁小落高를擇하고도徹夜豪雨의襲來와 颱風의 念慮로 反히十丁高인 三十圓五十六錢에 場寄始한後 阪地五節六十五錢으로六十九錢에止場함을 伴하야五節四十五錢으로 四十八錢에場寄止하엿다

後場釘着

後場 三十圓四十九錢에 一丁高로 始場後申着이다가 四十八錢에 止場하다

颱風도凡常視 一高後에軟味

今朝阪地初付三十二圓七十八錢인 昨止價보다의 一丁反落을 受하고도 當地는 一昨日부터의

市場六感

◇株……東京東新은 昨後場百二十四圓八十錢 今前場五圓二十錢으로 五日의 大圓丁以來의高價▲日産도 七十九圓九十錢으로 七日八十圓二十錢以來의 高價로 二段活躍에 移한 모양▲鐘新은 百六十二圓臺로 新高價奔騰 또拂込論再燃인모양▲何如間市勢全般에 明朗性이잇서보임으로 弱氣心境에 變化가생긴모양▲자-秋高의 序幕?▲頹하反하다가 다시 保合일지 速斷을 不許나 모름이 維平買下方針이 似好일뜻

◇米……當中兩限은 政府米拂下의 影響을바더 步一步로軟態에 傾하고 先限은 新米時代의 買上을 前提로比較的堅硬하다 그래서 當中과先限의 鞘는漸次縮少▲그러고當地의當限은 買方의 態度는아즉鮮明치못하고 賣方은 渡米하기로 決意한모양▲政府에納會에臨迫한 當限은此渡에서 又復一落을告하기가十中八九▲그런데 이번의 颱風으로 風災보다도 水害가 多하다고 連日豪雨를 啓憤하는 朝鮮의 今後가 果如何? 아마도凶作으로될 氣勢가 잇는지

政府米拂下로

期近漸次軟弱

旣報한바와如히 政府米二百萬石 賣拂下를 決定發表하는 一方으로 朝鮮에保留된 政府米二萬石을加藤、力武、朱命基、杉野、直野、河村、有馬、朝鮮各精米所와 共益社、土居、金太壽에 指命拂下하기로되엿슴에 따라 期近은漸次軟弱에 陷하는 모양이다 當地當限과 如한것은 金太의實物이 渡米化할것으로 買方이受取하려하는 때에는 어데까지 渡米할 決意한것으로 受渡側의 態度如何가 注目處이다 實로 今回拂下米는 昭和八年產米임으로 渡米에 供할수업스나 그러나 그만한 數量을 拂下하는 때에는 糧米의 不足을緩和케하는 同時에 渡米의 集集도 容易할수잇슬것이다 그뿐만아니라 當中兩限은 最高公定價格에 接近한 限界이니만치 更伸할餘力이업스며 從하야 買方으로서도 警戒自重하야 受米한 意思보다도 될수잇는대로 利退하려하는 光景인즉 期近은 漸次軟態에 傾할모양이다

堂島前場一息

【大阪電話同盟】各場共히 散漫한 賣物을 消化하며 小方

各地正米

京城軟化

期米低와 拂下로 人氣不振이오 氣配五錢軟化이엇다 ㊂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 一三、〇〇

仁川不冴

期米餘狀과 拂下에壓迫되어 買氣去益挫折되고 五錢低氣配이엇다 天候不良으로 賣物은 거의보이지안햇다 ㊂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 一三、七五

釜山鈍調

定期伸悩와拂下에壓迫되어 買氣極度로 萎縮되고 겨우當用小口買가 散見되는 程度에 不滿하고 市況은 鈍狀이엇다 ㊂三等 三一、七〇 四等 三一、四〇 一等白米 一三、八〇

大邱軟弱

當用買不振이더가 期米不勢로 月末準備도 업시 氣配十錢軟化이엇다 ㊂三等 三一、二〇 四等 三〇、九〇 一等白米 一三、四〇

木浦强堅

依然 實需는不振이나 天候關係로 先高側이强하고 所持側態度는 容易히 緩和되지안희 市勢만 十錢高唱이엇다 ㊂三等 三一、三〇 四等 三〇、九〇 一等白米 一三、〇〇

群山少弱

拂下로 人氣軟分裂하고 氣味迷인데다가 期米의 漸落을 移하야 買氣가去益 組衷되어 氣配五錢低唱이엇다 ㊂三等 三一、〇〇 四等 三〇、八五 一等白米 一四、〇〇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賣方 ◇買方

中限

先限

[illegible]

金融 (廿七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外國爲替 (廿七日)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穀類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商品 (廿七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鮮滿押油冲價◆ ◆鮮油冲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株式 (廿七日)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東京現株◆ ◆朝取短期實買高◆ ◆限定代引日步◆ ◆大阪長期◆ ◆大阪短期實組◆

期米 (廿七日) ◆朝取期米實買高◆ ◆朝取期米◆ ◆大邱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正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取組◆ ◆各地正租市勢◆ (單位錢)

商品 (廿七日) ◆大阪綿糸◆ ◆大阪綿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지카고期米◆

東益夏商店
米 株
盆
仁川 京城
金益證券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期米 株式
玉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石金 分析 賣買 土金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〇番地
電話本②一三六番
振替京城一一五四番

朝鮮紙物都賣
北
全北企業株式會社
電九七四五番
振替京城二四八〇番
支店 全州府本町一丁目
電二五四番
兼委託販賣